

최정희 마스터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43호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영어 + 24개 국어 자막〉

680 공(空)의 차원을 넘어서

1999. 12. 27. 태국 방콕 국제 선육



선(禪)에서 말하는 공의 세계를 아는가? 이 '공'의 차원보다 더 높은 세계는 존재하는가? 이 DVD의 질의응답에서 스승님은 공의 경지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 '공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완전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입문을 통해 깨어난 후 여러분은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해서 진정한 보통 사람이자 성인(聖人)이 됩니다." "여러분은 두 세계에서 직분을 다하게 됩니다. 천상의 존재로서의 의식과 인간 존재로서의 의식 둘 다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스승님은 이런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인간계와 천상계, 두 곳 모두에서 고결한 삶을 즐길 수 있으며 양극단의 불균형과 불완전함을 초월해야 한다고 일러 주셨다. 또한 인간의 섬세한 의식과 함께 초탈한 천국의 경지를 얻을 수 있고, 세상에 살되 세속에 얽매이지 않은 채 누구나 진정으로 완벽하고 부유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CD-CE03 〈영어 + 중국어 통역〉

명상은 영혼의 음식

1985. 9. 27. 포모사 타이베이

음류의 힘

1985. 9. 29. 포모사 타이베이



이 CD는 스승님이 포모사에서 공개 강연을 시작하시기 전의 초창기 강연을 담은 것으로서, 이번에 최초로 출판된 매우 귀중한 보물이다.

세간의 사랑의 무상함을 어떻게 경계하고 깨달아 진실되고 영원한 사랑에 도달하는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정복자인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 왜 장례 행렬을 할 때 자신의 두 손을 관 밖으로 꺼내 대중들에게 보이려고 부하에게 지시했는가? 한때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이 역사적 인물은 사후 무엇과 마주쳤을까? 『지장경』에서는 "중생은 마음을 일으킨 순간 업을 짓고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명상이 음양의 균형을 잡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음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수확이다. 그 이유는? 이런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스승님의 명쾌한 강연을 들어 보시길 바란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

MP3-CR11 〈중국어〉

1991. 5. 5-12. 포모사 시후 선철(4) 하편

1. 스승님의 교리 공부
2. 신은 세상을 보시한 존재
3. 스승님의 교리 공부
4. 석가모니불 이야기
5. 출가와 재가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19259438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우리는 선의(善意)와 사랑, 아름다움과
도덕으로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야지, 결
코 무기를 사용해선 안 됩니다.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43호

출판일자 : 2003. 11. 15.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
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
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
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
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앞표지 안/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CD/ MP3

2 다채로운 이벤트

체코/ 미국/ 필리핀/ 포모사

6 행사메모

7/ 46 매체보도

심신의 긴밀한 상관 관계/ 포모사 청년일보

8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평화의 길-신과의 직접적인 연결

9 골라 뽑은 수행문답

전쟁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 신의 사랑만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깨닫고 나서 더욱 강력한 힘으로 기도하라/ 깨달음으로 평화로운 미래를 건설하자

11/ 27/ 40 감로법어

진정한 평화의 길/ 습관을 깨뜨려 업장에서 벗어나라

13 시

내면의 신/ 고향으로 가는 길

14 스포트라이트

기쁨의 보물, 명상으로 자신을 축복하라

17 스승님의 농담

늙고 싶지 않은 여자의 마음/ 진짜 나이는?/ 달갑지 않은 영예

18 영원의 찰나

진아의 노래-월터 휘트먼의 깨달음의 작품

21/ 30 스승과 제자 사이

스승과 제자는 이심전심!/ 최고의 여행 가이드/ 사랑의 포옹

22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예고와 관음

28 지혜어록

관음의 힘

29 영성과 과학

감성 지능을 뛰어넘어 성공적인 삶으로

31 신기한 감응

최고의 무공/ 신의 은총으로 화마에서 무사하다/
스승님의 도움으로 건강이 나아진 약혼녀

34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인류를 만물의 주인으로 만드는 지혜

37 동물의 유정 세계

채식하는 고양이, 빅헤드 이야기/ 영적인 개/ 어미 뱀장어의 보호 본능

41 수행의 길목에서

채식으로 정신을 한 차원 고양시키다

42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행사

사랑은 최고의 치료제

45 독자의 편지

스승님께 봉사하길 고대하며...

47 이야기 세상

사제지간의 성스런 사랑/ 안성맞춤이었던 상자

50 관음 웹사이트

51 전세계 연락처

뒤표지 무상 예술

대나무 만세등이 무상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열다

체코 소식

무지개로 화현하신 스승님의 사랑

[프라하]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의 동수들은 2003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칭하이 데이 경축 기념선이 행사를 열던 중 아름답게 발현한 스승님의 사랑을 목도하는 큰 축복을 누렸다. 동수들이 즐겁게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오색영롱한 무지개가 갑자기 식당에 나타나 벽에 걸린 스승님 법상에서부터 퍼져 나

와 천장을 두루 비추었다.

찬란하게 빛나는 무지개를 보고 그곳에 있던 동수들은 모두 감탄해 마지않았다. 이 경이롭고 감격스런 칭하이 데이 선물은 15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무지개 빛은 먼저 스승님의 법상에서 나오기 시작해 서서히 무지개의 형상으로 커졌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작아져 아

주 밝은 하얀 광점이 되었는데, 그 하얀 점은 마치 명상할 때 지혜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듯했다! 그리고선 천천히 스승님이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이 사라져 갔다.

선 행사에 참가한 모든 입문자들은 스승님의 가피에 크게 감사드리면서 스승님께서 행복한 칭하이 데이를 맞이하시길 기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몸과 정신의 양식을 선보인 행사

[산호세] 최근 산호세 센터 동수들은 스승님의 축복 속에 일주일 사이에 베이 에어리어(Bay Area) 채식 박람회와 우리 단체의 산호세 채식 식당에서 각각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2003년 2월 1일 토요일에 아름답고 드넓은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채식 박람회는 북부 캘리포니아 최대의 채식 축제이다. 이 행사에선 무료 채식 시식회 외에도 유명 강사와 작가들의 강연, 현장 요리 시범 등을 통해 채식 요리의 간편함을 알렸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채식 식당도 부스를 하나 설치해 이전 많은 행사들에서 큰 호평을 받았던 인

디안 다르마와 사천 두부 요리를 선보였는데, 이 요리를 맛보려는 손님들로 줄이 끊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맛있는 음식을 다시 시식했을 뿐만 아니라 부스에서 상영 중인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퍼져나오는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사랑이 만드는 고요하고 상서로운 분위기도 함께 즐겼다. 또 많은 구도자들이 부스를 서성이며 스승님의 비디오테이프를 보면서 마음속 깊이 갖고 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채식 식당의 단골 손님들도 이 행사에

참석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다양하고 맛있는 메뉴가 차려진 걸 보고는 큰 기쁨과 흡족함을 나타냈다. 주방장은 계는 감추듯 사라지는 천상의 음식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설 새 없이 큰 냄비로 몇 차례나 요리를 만들어 내야 했다. 게다가 다른 부스들이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철수하는 바람에 우리 부스는 더욱 바빠졌다. 동수들은 눈코 뜰 새 없



이 일하다가 행사가 끝나기 한 시간 전에야 겨우 설 기회를 얻어 스승님의 축복과 일을 마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채식 박람회에 대한 산호세 센터의 성공적인 참여를 자축하는 의미로, 이날 저녁 동수들은 한 채식 카페에서 박람회에 참여한 손님들과 한데 어울려 댄스 파티를 가졌다. 꼭 두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설새 없이 대중에게 봉사하고 저녁에 춤을 춘 데 이어 바로 단체명상에 참가한 동수들의 활기 넘치는 모습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다!

이 행사에 이어 산호세 센터는 일주일 후인 2월 8일 우리 산호세 채식 식당에서 다시 한 번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앞서 열린 박람회에서 받은 전단지들을 통해 이번 강연회에 참석한 한 청중은 기쁜 얼굴을 감추지 못하며 스승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했다. 또 한 사람은 강연회가 시작되기 바로 몇 분 전 채식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 소식을 알고 참석하기도 했다. 열의에 찬 구도자들은 매우 집중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질문을 하고 난 다음 방편법을 전수받았다.



필리핀 소식

스승님의 사랑이

오지의 소수 민족에게 미치다

[마닐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까스틸레조스는 온통 울창한 산림으로 둘러싸인 산악 지대다. 바깥 세상의 문명에 대해 어두

운 이곳 원주민들은 채소를 키워 먹고사는 단순한 삶을 영위한다. 하지만 필리핀의 기후가 매우 더운 데다가 우기도 짧아서 주민들의 생활이

궁핍하고 생필품도 여러모로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그곳을 지나다 우연히 그곳 주민들을 만나 그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한 사형은 어느 날 마닐라 센터에서 단체명상이 끝난 후 동수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말을 들은 동수들은 까스틸레조스에 스승님



의 가르침과 함께 옷과 사탕, 과자 등의 선물을 전해 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민들은 예의 그 사형이 다른 동

수들과 함께, 그것도 견본책자와 잡지, 특별히 준비한 선물 등이 담긴 선물 상자를 한아름 안고 돌아오자 놀라움과 기쁨을 금치 못했다. 그

들은 그곳 방언으로 “살라마트 뽀 마스터 칭하이.”라고 말하며 스승님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포모사 소식

진달래 계절에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

[타이베이] 매년 진달래 향기가 포모사 전역으로 은은히 퍼져 나가는 춘삼월이 되면 국립 대만대학에서는 봄을 알리는 진달래 축제가 열린다. 3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린 올해 축제에서는 여러 학과가 후원한 전시회와 동아리 축제가 많이 열렸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대학 청년 모임인 ‘광음회’도 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다.

올해 진달래 축제 기간 동안 광음회는 스승님의 신간 『평화의 길-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또 흥미롭고 독특한 ‘대만대학 채식 여행’이라는 게임을 고안해 캠퍼스 주변의 채식 식당을 소개하는가 하면 채식 홍보 책자를 나눠 주기도 했다. 신간 소개회와 채식 여행 게임으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함께 전해졌다.

포모사의 저명한 연구 기관인 중앙연구원과 대만대학 근대사 연구소의 주홍위엔 교수가 우리 부스를 방문했는데, 그는 스승님께서 초청을 받으신 2002년 중앙연구원의 학술 세미나를 주관한 바 있다. 주교수는 마이크를 들고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즉석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세계가 긴장과 갈등에 처한 지금, 칭하이 무상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자비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관음 가족과 세상 사람들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인류가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온정이 넘치는 문명 사회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간단하면서도

힘있는 그의 연설은 청중으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평화를 사랑하는 전(前) 입법위원 지엔스카이 씨도 우리 부스를 방문해 신간 소개 글을 읽고는 스승님의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과 인류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높이 칭송하였다.

광음회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방문객들이 진정 그들 내면의 사랑의 힘을 고양시키고 자신을 깨닫고 ‘평화의 길’이라는 높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기를 소망했다. 이들이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열의를 다해 소개한 결과, 즉석에서 십여 명이 방편법을 신청하며 신과 직접 연결되는 기쁨을 체험하고 싶어했다.





포모사 소식

남 포모사의 영성의 향연

[까오슝] 타이베이 국제도서전이 끝난 후 까오슝에서는 2003년 2월 22일부터 9일에 걸친 국제도서전이 열려 포모사 남부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와 영성의 향연을 제공했다. 개막식에서 씨에장옌 시장은 동수가 쓴 다음의 기도문을 낭독했다. “지식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혜가 우리 마음을 정화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사랑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옵고, 다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이어 평화의 비둘기와 스승님의 신간 제목인 ‘평화의 길-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쓰인 헬륨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가운데 도서전의 막이 올랐다.

포모사 남부 주민들에게 『평화의 길-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의 정수를 체험케 하기 위해 칭하이 무상사 출판사는 22일 신간 소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엔 국립 중정대학의 차이즈쥔 부

교수, 창룽 기독교대학 번역과의 숭빈빈 교수, 까오슝 의대의 청화썩 박사, 시인 모예 씨, 중국 석유공사 책임연구원 라이티엔만 씨 등이 초청돼 여러 각도에서 이 책을 조명했다.

도서전 기간 중에는 ‘사랑과 평화, 마음의 티 파티’라는 이름의 대규모 옥외 세미나도 개최되었는데, 독자들은 향기로운 커피 향이 가득한 가운데 천상의 음악 라이브 공연을 감상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스승님의 노고와 발자취가 담긴 다큐멘터리 비디오를 시청했다. 이 밖에도 시인 모예 씨와 음악가 씨에롱이 씨, 환경 보호 전문가인 린로우시 씨 등이 부스로 초대돼 청중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편안하게 의견을 주고받



스승님의 신간 제목 ‘평화의 길-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쓰인 보드를 매단 풍선들.

음으로써 매우 정감 있고 감동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입문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200여 명은 방편법을 배웠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나타난 이러한 결과에 도서전에 참가한 동수들은 비할 데 없는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 까오슝 도서전과 같은 행사를 통해 더 멀리, 더 넓게 뿌려진 영성의 씨앗이 머지않아 싹이 트고 쑥쑥 자라 결실을 맺길 기대해 본다.



신간 세미나를 가득 메운 청중들.

이 행사는 썬 TV ‘예술과 영성’ 프로그램 제30편에 방영되었다.

인터넷 시청 관련 URL: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중국어- 영어 자막)



포모사 소식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자

[띵띵] 심신과 영혼의 건강, 환경 보호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해 포모사 형춘 제3원자력 발전소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특별히 초청해 지난 3월 7일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자’라는 주제로 영성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의 주목적은 포모사 남부 주민들에게 행복과 자유의 진정한 원천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세미나는 먼저 스승님의 세계 순회강연 중 하나를 비디오로 상영하면서 시작되었다. 스승님의 지혜와 사랑의 말씀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청중들의 영혼 깊숙이 울려 퍼져 그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비디오 상영이 끝난 후에는 관

음법문에 대한 관음사자의 간략한 소개와 함께 방편법을 전수해 청중들은 처음으로 삼매를 맛볼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청중들은 가슴 한가득 축복을 안고 각자의 근무처로 돌아갔다. 이제 소리 없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그들의 삶은 영성의 색채로 앞날의 여정을 새로 덧칠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새로운 삶의 장을 열게 되었다.



행사 메모

지구에서 진행 중인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seminar/>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minar/index.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

심신의 기밀한 상관 관계

미국 뉴스그룹 발췌 (원문 영어)

2003년 1월 20일 발행된 『타임』지의 기사 ‘마음은 어떻게 몸을 치유하는가-의사와 과학자들이 감정과 신체 건강의 관계를 밝혀 내고 있다’에서 필자는 마음의 세계는 육체가 존재하는 세계와 매우 다른 것 같다고 주장한다. 몸을 자르면 피가 쏟아져 나오지만 뇌를 자른다고 해서 생각과 감정이 수술대 위로 쏟아져 나오진 않으니 말이다. 또한 사랑과 분노는 시험관에 모아 무게를 재거나 측량할 수 없다.

서양 철학은 이런 형이상학적인 분류를 심신의 이원론으로 바라보지만, 동양의 많은 전통에서는 동일한 내면 세계를 관하고선 그와 상반된 결론을 내놓았다. 즉 몸과 마음은 불가분의 연속체라는 것이다. 심리학자와 신경학자들도 지금은 몸과 마음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 삶을 다채롭게 하는 생각과 감정은 신경세포 내부와 신경세포 간의 복잡한 전기 화학적 반응의 결과이며, 정신분열증의 환청 현상이나 우울증을 동반하는 보잘것없다는 느낌과 자기 혐오는 현실에 근거를 두는 것 같아도 대뇌의 전기 화학 반응이 잘못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음은 육체의 나머지 부분일 뿐 아니라 한쪽의 평온은 다른 한쪽의 평온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체장이나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뇌에 이상이 생기면 생화학적인 충격파를 보내 육체가 쉴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한때 서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되었던 뇌와 몸이 사실은 끊임없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복잡하면서도 균형 잡힌 연계를 맺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건강한 육체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의 사고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적절한 영양과 운동을 공급한다면 몸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반면 마음 역시 그렇게 잘 돌보지 않으면 약해지고 병이 들 것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사고를 견지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면 육체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기운이 형성돼 인간은 균형 잡힌 환경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time.com/time/covers/1101030120/>



평화의 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

전쟁에서 누가 옳고 그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양쪽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적에게도 영혼과 감정, 지성, 자비심과 이해심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앉아 협상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들과 친구가 되려 하지 않고,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대단치 않거나 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 것입니다.

— 칭하이 무상사



중동 지역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졌다.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는 전쟁의 사상자, 절망, 증오, 집을 잃은 피난민 등 가슴을 쥐어짜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평화에 대한 갈망을 깊이 환기시킨다. 이 시점을 맞아 사람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 인류는 전쟁을 일으키는가? 어떻게 해야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까?’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불안에 떨던 유럽 사람들은 칭하이 무상사에게 위와 같은 질문들을 제기했고, 자비로운 스승님은 많은 강연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알려 주셨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이 『평화의 길-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에 수록되었다. 다음은 그 중에서 발췌한 주옥같은 말씀들로서, 이 말씀들을 통해 진정한 신의 사자(使者)께서는 전쟁의 근본 원인을 설명하고 인류에게 평화에 대한 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클 라 범 은 수 행 문 답

전쟁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

청하이 무상사/ 1999. 5. 26.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0

질문: 왜 세상에는 전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멈출 수 있습니까?

스승님: 전쟁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에 전쟁과 유사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마다, 죽이고 싶어할 때마다, 신이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전쟁과 유사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가 어느 정도 뭉치면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오, 시기,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에는 각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거나 서로 사랑할 때는 매우 즐겁고 행복합니다. 비록 그 사랑을 만지거나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며, 그 사랑에 흠뻑 젖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면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 병이 나기도 합니다. 중오, 시기, 소유욕, 무지,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 자신의 생각과 행동, 욕망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신의 사랑은 세상의 온갖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처방제입니다.

신의 사랑만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청하이 무상사/ 1999. 5. 28. 체코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54

질문: 영적인 관점에서 전쟁의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승님: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인류가 무지로 인해 서로를 냉혹하게 죽이는 상황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평생 일해 얻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다만 그들의 슬픔이 다소나마 가라앉기를 신께 기도할 뿐입니다. 신이 내면으로 그들을 축복하셔서 생명이 영원한 것임을 알게 되길 기도할 뿐이지요. 신은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세상에서 얼마를 잃든 천국은 여전히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구도자들이 최선을 다해 우리 의식 수준을 높은 깨달음의 차원으로 고양시킨다면 세상이 더 나아지리란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신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 앞과



옆에 앉아 있는 신들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오직 신의 사랑만이 형제자매들 간의 미움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그러면 전쟁도 멈출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우리는 서로 싸우면서 이 행성의 자산과 자원을 파괴해 왔습니다. 심지어 영적 스승들의 가르침까지 파괴했지요. 그들의 육신과 삶의 방식에 해를 끼쳤습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게 뭐니까? 이 전쟁, 혹은 그 어떤 전쟁에서도 얻는 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안된 마음이 들고,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훨씬 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들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태라 폭력에 의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 내면에 사랑이 너무도 부족해서 그런 폭력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너무나 절망적이라서요. 그들은 환상의 세계에 아주 깊이 빠져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선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신께서 더 많은 사랑과 지혜로 그들을 축복해 그들이 어서 깨달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단축하고 갈등을 완화하여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긍정적인 에너지와 생각을 한데 모아 이 지구의 진보를 위해 매일 명상한다면 전쟁을 종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피해자들은 비록 이 물질 세계에서는 많은 고통을 겪을지라도 다음 생에서는 신의 환대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의 내면에 이 세상을 축복하고 전쟁을 멈추고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힘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수록 이 세상의 문제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채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앞으로 몇 백 년 후엔 이곳에서 지상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 수만 있다면요!

깨닫고 나서 더욱 강력한 힘으로 기도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9. 5. 9. 네덜란드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47

질문: 전쟁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스승님: 그들을 돕는 최상의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 깨닫는 것입니다. 일단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 보다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신께 말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신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신은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요. 신의 언어가 매우 미묘한 까닭에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의 응답을 들으려면 반드시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를 명상, 묵상, 기도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신과 연결돼야 합니다. 전화선을 꽂아 전화를 다시 접속해야만 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신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저렇게 하는 식입니다. 신과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힘과 생각을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지만 우리 기도엔 반대

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우리 내면의 힘과 연결돼 있지 않아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쟁을 막기 위해 돌아다니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은 것이며, 부처 또한 국가 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써 돌아다니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얻으라고 가르치기 바빴습니다. 그것만이 이 지구와 다른 우주 행성의 온갖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신실한 기도를 통해 세상을 도울 수도 있지만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신의 힘과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를 원해도 그것을 뒷받침해 줄 힘이 없습니다. 마치 옷이나 신발을 사고 싶어도 은행에 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은행에 돈을 모아 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지요.

깨달음으로 평화로운 미래를 건설하자

청하이 무상사/ 1999. 5. 26.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0

질문: 깨달음은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스승님: 물론 여러분 나라의 온 국민이 깨닫는다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나라 곳곳에서 걸어 다니는 신을 보게 되지요. 또한 그것은 여러분 나라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세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사랑과 평화가 많아지고 풍부한 식량과 생필품이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축복이 보다 고루 나눠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나라가 매우 번영하고 있고 평화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계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가 세상을 더욱 축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감 로 법 어

진정한 평화의 길

사람들이 신을 잇는 한 전쟁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내면의 신을 알고 그와 소통해야 합니다. 그런 후엔 다른 사람도 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신이 다른 신을 죽이지는 않을 테니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서로를 또 다른 인간으로만 보고 그의 개성, 특성, 습관, 국가 전통을 볼 뿐, 그의 내면에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하이 무상사/ 1999. 5. 18. 불가리아 소피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51



우리 자신이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신이라도 우리 지구에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왕 이곳에 살고 있으니 여기 수준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평화가 있어야만 비로소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내면의 신을 볼 때만이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신도 볼 수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9. 5. 28. 체코공화국 프라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54

사랑의 생각과 긍정적인 사고는 항상 분위기를 더 밝고 긍정적이며 사랑이 넘치게 만듭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영향력도 커집니다. 생각이 집중되면 그 영향력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어떤 일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내면의 주의력과 이 신의 힘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알아야만 신의 힘을 운용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 원할 때마다 세상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내가 이 신의 힘을 되찾는 비결을 나누고자 이곳에 온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9. 5. 18. 불가리아 소피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51

우리는 선의(善意)와 사랑, 아름다움과 도덕으로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야지 결코 무기를 사용해선 안 됩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9. 5. 22. 이탈리아 로마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46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자신의 약점과 애고, 나쁜 성향을 이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전쟁의 승리보다 값진 승리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9. 5. 5. 스페인 마드리드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44

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알고 신을 직접 대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며 세상은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전쟁도 더 적어지고 지상에 천국을 가져오게 됩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9. 5. 24. 헝가리 부다페스트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52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안다면, 아니 최소한 반만이라도 신을 안다면... 인류의 3분의 1이, 아니 4분의 1만이라도 신을 안다면 전쟁도, 기아도, 그 어떤 종류의 문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구는 천국이 될 겁니다. 서로 다른 종교들, 심지어 같은 종교 안에서의 싸움도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단 한 분의 신만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게 될 테니까요.

칭하이 무상사/ 1999. 5. 22. 이탈리아 로마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46

사랑하는 스승님께, 스승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테레시아 아디아넝티아스/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

고향으로 가는 길

내면의 신

천국의 빛, 낙원의 노래
빛의 눈을 통해 전율하고
저 고대로부터의 오래고 험난한 여행길에서
깊이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네

내면으로 들어가 사랑의 바다에 스며들라
지혜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라
성모(聖母)의 사원 속으로 날아 들어가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여라

세상의 그 어떤 보석도
빛의 천국에 있는 천상의 보석엔 빛을 잃으리
절망에 찬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니
내면의 스승께서 다정하게 미소 지으시네

신성한 명상의 기회, 놓치지 않으리
그토록 많은 고통과 고투
수많은 눈물로
지칠 대로 지친 뒤이니

그 까닭은 오직
우주의 어머니,
모든 시대의 성스런 현자,
신께서 직접
넘치는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팔 벌려 기다리시기 때문이지

반짝이는 별빛이 그 아들을 응시하니
마치 천국으로 가는 문인 듯
새들의 지저귐 속에 황금빛은
성령의 사원을 비추이네

고향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도 하여라
그대가 첫걸음을 떼는 순간
무수한 신기루가 발부리에 채이고
환상의 파도가 밀려와 믿음을 뒤흔드네

마야의 계락을 조심하게나!
혹여 맞닥뜨리면
성스런 이름을 외우고
저 우아한 예언자를 기억할지라

고향으로 가는 지도도 있고
힘도 손안에 들었네
그러나... 때로 세상은 가차없어
아들을 나락으로 끌어내리네

눈물을 닦아라
보라! 천사들이 그대 곁에 있나니
성인의 대열이 저 높은 곳에서 손길을 뻗어 오고
내면의 스승은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네

신성한 명상을 통하여
신의 왕국에서 그들을 만나 보세나
빛의 바다에 흠뻑 젖어
내면의 성스런 음률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성모와 함께하게나



기쁨의 보물

명상으로 자신을 축복하라

청하이 무상사/ 2002. 12. 25. 미국 플로리다 국제 선오 (원문 어울락어)

동수: 너무 엄숙할 때는, 이를테면 제가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는 명상할 시간이 되면 “아, 명상할 시간이다!” 하고 습관적으로 말하곤 했었는데, 그러면 마음은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 신을 만날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오해를 외우며 집중하면 명상이 순조롭게 잘 됩니다.

스승님: 맞아요! 명상을 즐거운 일로 만들어

야 합니다. 명상은 즐거운 거지요!

동수: 일할 때도 이 방식을 적용해 봤어요. 일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서 힘이 하나도 없을 때라도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스스로 물으며 그 에너지가 몸이 아닌 우주적 원천에서 오는 것임을 떠올리면 금세 무궁무진한 힘이 샘솟는 걸 느끼게 됩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좀 피곤해도 금방 회복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한하고 미친 한 ‘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대단한 존재도 아니다. 이 모든 건 우주의 힘이 한다.’ 하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 아무 문제도 없게 되지요.

스승님: 예, 그렇습니다. 명상할 때는 이완해야 합니다. 우리는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신께 감사해야 합니다. 요가에서는 명상을 ‘이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신문이나 잡지, 정기 간행물들을 보면 명상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립니다. 또 장수나 건강의 비결에 대해 언급할 때도 이완이나 휴식, 명상할 시간을 찾으라고 권합니다. 명상을 말하는 거지요.

명상은 이제 매우 대중적이 되었습니다. ‘신을 찾기 위해 명상하라’고 하진 않지만 ‘이완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기분을 전환하고 장수하고 성공하기 위해 명상하라’고들 합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다방면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하루 중 휴식할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잠자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명상이나 호흡 조절 등 그 어떤 형태로든 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명상의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돼 이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 휴식이나 명상 시간을 갖는다면 몸도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명상이며, 그것도 매일 명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어느 잡지에서나, 심지어 엉터리 같은 잡지에서도 명상을 얘기합니다. 명상은 전세계 사람들과 과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상을 그토록 고통스런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금 명상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단체명상에도 갈 수 없고 연락인이 이러쿵저러쿵할 테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명상은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은 명상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온종일 일하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에 바쁩니다. 그러니 명상하는 시간만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지요.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합니

다. 명상은 온갖 보물을 우리에게 끌어 모아 우리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시간입니다. 제대로 명상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유 때문에 명상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상이 여러분에게 매우 이롭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명상하는 시간입니다. 명상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이며, 누구도 줄 수 없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자신을 위해 명상하는 동안 남들도 자연스레 그 혜택을 입습니다. 가족과 친척, 개와 고양이들도 이로움을 얻게 되며 나무나 꽃들도 이롭게 됩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말예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모든 것도 이로움을 얻지만, 그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명상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며, 여러분 몸을 살찌우는 최고의 보약이자 두뇌를 키우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또한 지혜를 계발하는 가장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차와 무지하게 큰 진주를 가지고 있고 그 값이 엄청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보내는 명상 시간만큼 값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온 우주 최고의 보석입니다. 어떤 동수가 말했듯이 명상은 휴식이며, 자신을 키우고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 주는 가장 귀한 보석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니 누가 그것을 원치 않겠어요? 우리 두뇌는 ‘진귀한 보석’이란 말을 들으면 “좋다.”고 하고, ‘휴식’이란 말을 들어도 “좋아, 난 휴식을 좋아해. 일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 이봐 쉬자고. 자, 난 준비됐어!”라고 합니다. 두뇌는 이렇습니다.

두뇌는 ‘좋은’과 ‘나쁨’, ‘흑’과 ‘백’으로만 구별할 줄 압니다. ‘일’이라는 건 골칫거리고 ‘일’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두뇌는 이미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하면서 싫어하지요. 그러나 “좋아, 잠시 쉬자.”고 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두뇌는 좋고 나쁜 것, 휴식과 고된 노동이 뭔지를 잘 압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두뇌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뇌를 훈련시키고 우리 몸의 세포가 우리 말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말하면 두뇌도 좋게 받아들이고 나쁘다고 말하면 그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세포가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끔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 수שי의 세포가 즉각 알아듣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바로 자신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법을 잊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부정적인 힘에 끌려 다니고 좋지 않은 얘기를 듣고는 그 쓰레기를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두뇌는 무엇을 듣든 들은 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쁜 것은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의를 정화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즉시 그만 듣고 던져 버리십시오. 이미 들었다면 두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녀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녀의 말을 듣지 마.” 이렇게 말하면 두뇌는 “아! 잘못된 정보군. 잊어버리자.” 하고 이해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수용한다면 두뇌는 그 정보를 옳은 것으로 여겨 그대로 기록하고 나중에 그대로 출력합니다. 우리 삶의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겁니다. 좋은 것을 말하면 두뇌는 “좋아, 이것은 좋은 것이군.”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 나쁜 것을 말하면 “음, 나쁜 것이군.”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 외에 그 누가 우리의 스승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여러분 손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건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더러 여러분 손에게 지시하라고 할 수 있나요? 배고플 때 여러분의 두뇌가 음식을 찾으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지시는 여러분이 하잖아요? 출근을 할 때도 여러분이 직접 버스를 타거나 차를 몰고 사무실에 가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가 대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덕(德)과 선(善)으로써 행하도록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나날이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은 다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지금 지은 게 아니면, 과거에 만들었다가 한쪽에 두고 씻어내는 걸 잊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해를 끼치는 거지요. 그러니 그 누구도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어떤 나쁜 말을 듣든 즉시 그것은 진실이 아니며, 부정적이고 좋지 않고 자신과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듣는 걸 중단하고 바로 씻어내야 합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오물을 외워서 씻어내십시오. 아침에 나갈 때에는 이 큰 힘을 주머니에 한 가득 담아 갖고 나가세요. 그러므로 아침 명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귀가해서도 바깥의 쓰레기가 남아 있다면 명상으로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더 많이 씻어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울수록 좋지요. 그래야 쓰레기와 부딪혀도 바로 씻어낼 수 있으며 집까지 가져올 필요가 없게 됩니다.



늡고 쉼지 았은 여자의 마음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5

한 아파트에 사는 여자들끼리 싸움이 나서 고소를 하기 위해 법원에 갔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떠들기 시작하자 판사가 말했지요. “그렇게 한꺼번에 말하면 알아들을 수 없으니 한 사람씩 얘기해 주십시오. 자, 가장 나이 많은 분부터 얘기하십시오.” 그러자 법정은 쥐죽은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증언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진짜 나이는?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5



판사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몇 살입니까? 내 말은, 당신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좀 전에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한 걸 잊지 마십시오.” 여자가 대답했어요. “스물 한 살하고 몇 달 됐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지요. “정확히 말하세요. 그 몇 달이 몇 달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백십팔 개월이요.”

말감지 았은 병에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5

의사가 병실에 와서 존슨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요.” “그럼, 좋은 소식부터 알려 주세요.” 존슨 씨의 말에 의사는 말했습니다. “여기 의사들이 앞으로 불치병에 대해선 당신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스승님의 위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43/jk1.htm>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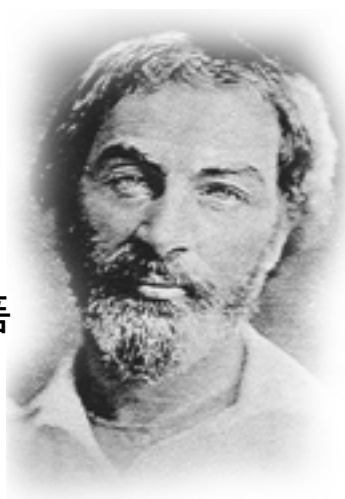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43/jk1.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43/jk1.htm> (미국)

진아의 노래

월터 휘트먼의 깨달음의 작품

리처드 스튜어트 사형/ 미국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19세기의 시인이자 수필가, 기자, 신비주의자였던 월터 휘트먼(1819-1892)만큼 세계 다방면과 다양한 창작 분야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 미국인은 없었다. 무수한 작가들과 예술가, 사회 사상가들에게 미친 그의 심대한 영향력은 영적인 통찰력과 우주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사상은 우리 칭하이 스승님을 비롯한 동서고금의 큰스승들의 메시지와 맥락을 같이한다.

생애와 작품

휘트먼은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가난한 목수이자 농부인 케이커 교도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살아가는 동안 교사, 인쇄공, 기자 등의 직업을 거쳤으며, 미국 남북전쟁(1861-1865) 중에는 퇴근 후 간호사로 자원 봉사하면서 병들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봤다. 당시 그는 정부 서기로 받는 봉급과 얼마 안 되는 작품 인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수입으로는 간병하는 환자들에게 생필품을 사 주고 홀로 된 어머니와 정신 장애자인 남동생을 부양하는 데 썼다.

남북전쟁 기간 중에 휘트먼은 노예 제도를 종식하고 연방 체제를 구해 내려는 노력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와 평등, 우주 만물의 일체성을 열렬히 옹호하였다. 휘트먼은 수많은 시들을 통해 여성과 흑인 및 그가 동경하는 평등 사회의 이념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혁신적이고도 동정적인 시각을 펼쳐 보였다.

휘트먼의 걸작인 『풀잎』은 감각이 풍부한 시집으로 1855년에서부터 1892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판본으로 발행되었으며, 미국적인 독자성을 갖춘 최초의 시집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 시집에는 영성과 과학이 뚜렷이 혼재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런 그의 작품들을 페르시아 수피교파의 시인인 루미(Rumi)와 인도의 성자 까비르 등 동방의 위대한 영성 작가들과 견주어 보기도 한다.

그의 시와 산문에 담긴 내용은 칭하이 스승님의 말씀과 놀라울 정도

로 유사하기도 하다. 휘트먼의 『풀잎』은 스승님의 강연과 시처럼 인생과 우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만물 일체와 선(善)에 대한 굳은 믿음, 심오한 영적 지혜를 내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종교의 기저에 깔린 보편적인 진리를 신봉하는 점에서도 그는 칭하이 스승님과 공통점을 보인다. 예를 들어 칭하이 스승님은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불교, 가톨릭교, 도교,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됩니다. 나는 그 모든 이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실로 말하건대, 모든 종교가 훌륭합니다. 모든 종교의 스승들이 훌륭하고 진리를 말하며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휘트먼 역시 자신의 시에서 “백 명, 천 명의 구세주, 인도자, 성경”을 받아들인다고 전하며 그 자신을 “모든 색깔과 계급,

모든 지위와 종교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깨달음의 흔적

휘트먼의 작품에 나타난 신비적인 특성과 서정적인 언어 표현력은 그가 일생 동안 어느 정도 영적인 깨달음을 체험했었다는 것을 추측케 한다. 그가 어떤 명상법도 수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의 글은 우주 만물이 하나라는 강렬하고 황홀한 깨달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가장 인상적인 시는 바로 이 ‘만물 동일체’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칭하이 스승님은 이에 대해서 깨달음을 성취해 예고를 넘어서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며 우주적 진아를 인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깨달음이란 이 삶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 가고, 우리의 육안으로 보고 육체 기관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위대한 것을 알아 가는 과정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것들보다 위대한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를 알게 되며, 또한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휘트먼은 『풀잎』의 여러 시에서 이러한 우주적인 일체감을 묘사했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나 자신의 노래’는 매우 영적이며 영감이 풍부한 서사시로서 깨달음을 향해 여행하는 영혼의 노래로 읽을 수 있다. 이 시는 육신은 비록 환상의 세계(‘세간의 온갖 기교와 논쟁’)에 갇혀 있을지라도 영혼은 이 차원을 뛰어넘어 더 높은 세계로 진입하고 또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래의 구절들을 살펴보자.

지상의 모든 기교와 논쟁을 초월하는
평화와 지식이 내 주변에서 빠르게 일어나 퍼졌다
그리고 나는 신의 손이 나의 가장 오래된 손임을 안다
그리고 나는 신의 영혼이 나 자신의 가장 큰형임을 안다
그리고 일찍이 태어난 모든 남자들이 내 형제들이고,
...여자들은 나의 자매이며 연인인 것을 안다
그리고 창조의 내용골*이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들판에 뺏뺏하게, 혹은 축 늘어진 나뭇잎들
그리고 그 아래 갈색 개미들
그리고 울타리에 낀 이끼 딱지와 돌무더기, 그리고 더 나이 든 형제들,
들풀과 잡초들
참으로 무수하다

* 토대

휘트먼은 자아와 진아가 하나 되는 깨달음을 얻은 결과 다시는 마야의 세계에 몰두하지 않게 되었고 영혼의 확장, 그리고 만물과 동감하는 환희심을 얻게 된다. 물질 세계를 초월한 높은 세계에 익숙한 독자라면 『풀잎』의 다음 시 구절에 나타난 깨달음 당시의 그 법열의 느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순간의 황홀한 실신 속에서
또다른 태양은
무어라 말할 수 없이
너무나 눈부시다
내가 아는 모든 천체들과
내가 모르는 천체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한 찰나에 미래의 땅,
천국의 땅을 보네

이러한 체험에 대해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주는 광대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때는 빛을 보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 빛의 색깔과 밝기는 서로 다르며 때로는 천개의 태양보다 밝습니다. 대부분은 즉각 신의 빛을 봅니다.”

깨닫고 난 뒤 휘트먼은 거의 언제나 삼매의 상태에 있었던 듯, 노트에 “나는 이 신비한 형상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항상 나 자신을 둘(나의 영혼과 나)로 인지한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그의 시 전반에 걸쳐 사용된 ‘목격’이라는 단어로 호기심 어린 이 일상에 얽혀 있으면서도 동시에 초탈한 체험을 묘사하



고 있다. 그는 ‘나 자신의 노래’에서 이를 삶이라는 ‘유희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으로 표현했다. 스승님은 이러한 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삼매는 여러분이 법열, 지복, 평온과 빛 속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매일 명상과 헌신적인 갈망, 혹은 어떤 형태의 의식(儀式)을 통해 법열에 들 수 있습니다. 삼매에 들면 온 세계를 잊습니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과 완전히 무관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성취한 휘트먼은 고통의 본질이 환상임을 또한 인식하게 되었다. 스승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완전한 스승들은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역시 ‘너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온전하며 천하에 일이 없다(天下本無事)는 것을, 그리고 모두가 완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깨닫는다면 그 이유를 알게 되어 다시는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게 되며 고통스럽지도 않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위를 그냥 떠나니게 되는 거지요.” 다음 구절을 보면 휘트먼이 이 이치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사랑한 남녀들의 진정한 무관심이나 가장된 무관심,
내 가족이나 나의 질병, 잘못된 행위나 금전의 상실과 부족,
또는 우울이나 기쁨,
전쟁과 골육상잔의 두려움, 의심스런 소식의 열병과 발작적인 사건들,
이들은 나에게 밤낮으로 찾아왔다가 다시 나에게서 떠나간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 자신이 아니다

이 부분을 보면 시인은 진아(‘나 자신’)가 타인들이나 자신과 가족의 질병, 사회적인 문제들로부터 야기되는 아픔에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결론

그의 전기와 작품에 나타난 풍부한 증거로 미루어 볼 때 월터 휘트먼은 그의 생애에서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체험한 것이 확실하다. 그가 힘

있고 열정적인 언어로 표현한 그 깨달음은 전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다른 이들에 대한 그의 강한 사랑과 만물 일체의 깨달음은 그의 시와 산문 작품 속에서 빛나고 있으며, 후세 작가와 예술가, 사회 개혁가들에 미친 그의 심오한 영향력은 휘트먼의 깊은 깨달음과 사랑, 세상을 품어 안는 그의 인격적 특질들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다. 또한 병들고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아낌없는 배움과 자연에 대한 감정 이입의 표현은 그가 깨달은 자로서 만물 동일체의 깨달음과 작은 개미로부터 보잘것없는 들풀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생명에게 사랑과 자비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휘트먼이 태어났을 당시는 산업 사회가 싹을 틔우던 시점으로, 미국이나 세계 모두에 있어 도전과 변화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와 지혜를 줄 목소리가 필요한 때였다. 청하이 무상사 및 다른 큰스승들의 메시지와 매우 유사한 휘트먼의 메시지는 19세기 산업 사회의 미국 노동 계급에서도 사랑과 자비, 깨달음을 갖춘 사자(使者)가 나타나 세계를 격려하고 고양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 주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휘트먼의 자비롭고 박애적인 관점은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영적 비전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전해 준다.



스승과 제자는 이심전심

투안리위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막 입문했을 당시 나는 성불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다. 그러다가 스승님께서 “나와 하루 명상하는 것은 집에서 삼년 명상하는 것과 같다.”고 하신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수지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곤 시간만 나면 스승님이 계셨던 신디엔에 단체 명상을 하러 갔다. 하루는 중간쯤 가다가 불현듯 스승님의 처소에서 약 200미터 비탈 아래에 있는 대문에는 초인종도 없고 계다가 근처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커서 대문에 도착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도 집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가자!’ 하고 생각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내가 대문에 도착하자 바로 내 여동생이 문을 열어 주었다. (당시 내 여동생은 시자로 신디엔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며 “스승님께서 알려 주신 게 분명해!”라고 말했다. 그러자 동생은 “맞아! 스승님께서 ‘네 언니가 왔으니 가서 문을 열어 줘라.’고 하셨는걸.” 하고 대답했다. 만약 스승님이 우리와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문 밖에서 지냈을 것이다.

최고의 여행 가이드

중국 할저우 동수

입문하고 나서 버스에서 명상을 할 때면 꼭 내릴 곳을 지나치곤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서 명상하기 전에 먼저 스승님께 목적지에 도착하면 알려 주십시오 부탁드렸다. 그랬더니 영락없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목적지에 내리고도 뭘 하러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그저 스승님께 도움을 청해야만 했고, 그럼 스승님은 자연스레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한번은 동수들과 놀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는 집결 장소만 알 뿐 어느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지,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라서 결국 또 스승님께 인도를 부탁해야만 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나는 계속 기도했다. “스승님, 제발 내릴 때가 되면 말씀 좀 해주세요.” 버스가 어떤 정류장에 도착할 때 “지금 내려라.”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허겁지겁 내리긴 했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 막막했다. 그

때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만나기로 한 사저가 보였다. 내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사저는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이런 우연의 일치야! 오늘 우리 아들이 이 길로 가자고 고집을 피우더니, 당신을 마중하느라고 그랬던 거군요.”

또 한번은 산 지대에 위치한 어떤 마을에서 동수 한 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동수가 말하는 소리가 똑똑하게 들려 왔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 동수를 마중하러 같이 산을 내려가자고 부탁했다. 우리가 산 밑에 막 도착할 무렵 그 동수가 탄 자동차가 때마침 도착해 모두들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무도 차가 오는 모습이나 차 소리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제게 알려 주신 건 스승님이 맞지요?’



예고와 관음

청하이 무상사/ 1989. 4. 29. 포모사 시후 센터 (원문 중국어)

예고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예고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예고는 일종의 개성, 개인의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개성은 별개 아닙니다. 개성은 우리의 진아가 아니며 우리의 깨달은 불성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개성일 뿐입니다. 개

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 온 습관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동물, 천인(天人), 지옥 중생, 축생이나 악귀로 태어날 때마다 특정한 습관을 갖게 됩니다. 어떤 존재든 각기 고유한 습관이 있게 마련인데, 우린 그것을 배우는 거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호랑이라면 당연히 흉폭할 것입니다. 매일 먹을 것을 잡고 동물을 죽이겠지요.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호랑이의 몸을 벗은 후 바로 사람이 된다면 그런 난폭한 성질이 남아 있을 것이며, 성질이 폭력적이고 고기를 좋아하거나 매우 거칠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용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싸움을 좋아하고 사소한 일도 크게 벌입니다.

만약 호랑이의 삶을 끝내고 다른 동물로 태어난다면, 이를테면 더 순한 양 같은 동물로 태어나 “메에, 메에.” 하며 지낸다면 매우 온순할 것입니다. 호랑이의 성질이 아직 남아 있겠지만 드러낼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 성질은 잊혀질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사나운 성품도 줄어들어 고기를 먹거나 죽이는 것을 그만두게 되고 동물적 본성과 살생의 본능도 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그 양의 몸을 떠나 다시 한 번 다른 양으로 태어난다면 더욱더 온순해져서 또다시 “메에, 메에.” 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 삶을 마친 후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양처럼 온순하고 착해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린 유순하며 말도 잘 듣고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며 무엇을 먹든 쉽게 만족합니다. 풀 먹는 것을 좋아해 잎이나 야채들을 찾아 먹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제각기 쌓아 온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성품을 보입니다.

만일 우리가 동물이었을 때 호랑이 노릇을 하다 죽어 다시 호랑이가 되고, 그러기를 반복한다면 그 품성은 악귀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난폭하고 터무니없고 아주 흉악해서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그건 그들이 동물에서 이제 막 몸을 바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물로서 많은 생을 살았고, 그때마다 사나운 동물로 태어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우연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동물로 태어나는 건 아닌데, 왜 그들만 계속 사나운 짐승으로 태어나겠습니까? 그건 아마도 그들이 사나운 동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쁜 업을 많이 지어서 그럴 겁니다. 살생을 너무 많이 했거나 인연으로 인해 그런 상황으로 몰려 매우 폭력적이 되었거나 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범죄자들은 감옥에 수감됩니다. 정부의 원래 의도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어 반성하고 선량하게 변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감옥에서 더 나빠집니다. 때로는 화를 내며 도주할 궁리를 하고 그렇게 나와서는 또 복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죄가 더 커지고 거기서 발을 빼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불쾌한 상황들을 겪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 대해줘도 나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경찰이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는데도 자기만 나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가 출감하면 복수를 하려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복수할수록 죄는 더욱 커져 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고,

가혹한 형벌을 받으면 그 증오심도 커집니다. 그렇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다 보면 마지막엔 정말 어쩔 도리가 없어지거나 고쳐질 여지가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사나운 짐승으로 있을 때 그 업장은 매우 깊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고치거나 참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사나운 짓만 저지른다면 영원히 동물의 수준에 머물러 그후 인간의 수준으로 올라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이 되려고 해도 아주아주 많은 생을 거쳐야 겨우 다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호랑이였을 때는 호랑이의 품성과 사나운 행동, 습관을 수집해 우리의 자장도 그런 사나운 기운을 품게 되는데, 그러다 인간이 되었을 때는 이미 이 자장이 이른바 ‘아뢰야식’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뢰야식은 과거의 생각과 행동을 전부 기록하는데, 그 기록은 굉장히 방대해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바로 반응을 내보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우리를 자극하면 그에 해당하는 품성이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그때는 우리가 현재 인간이지, 호랑이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 버립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동물과 같은 어떤 품성들이 있는지 살피고 자신의 업장이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업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거에 수많은 습관들을 수집했습니다. 윤회하면서 흉악한 행동을 너무 많이 수집하고 기록하면 녹음기처럼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재생합니다. 그럼 이 버튼은 무엇일까요? 그건 그런 기록들을 자동적으로 재생하게 만드는 계기나 사건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매우 사납게 굴면서도 왜 그런지 모를 때가 있는데, 그 버튼이 눌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말을 듣고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방금 상대가 한 말이 그 말과 비슷하게 들린 탓에 바로 화를 내는 거지요. 아니면 전생에 사람이나 동물이었을 때 누군가 밧을 놓아 우리를 잡았다면, 이제는 그런 밧이나 비슷한 모습만 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 상자를 볼 때 겁이 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상자들이 전생에 맞닥뜨렸던 밧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무섭고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원형 가구를 선호하고 사각형의 가구는 싫어한다든가, 아니면 삼각형의 가구를 좋아한다든가 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질색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상태들을 예고라고 합니다. ‘나’는 이 방식만을 좋아한다, 이걸 ‘내’ 취향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예고’입니다. 이 예고는 개성을 뜻합니다. ‘나’의 습관은 이렇고, ‘나’의 생각은 이렇다, ‘나’는 바꿀 수 없다, ‘나’는 바꾸고 싶지 않다, 아니면 ‘나’는 이렇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는 이런 것들



일컬어 예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고는 개성일 뿐이며, 신비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관음의 진동만이 업장을 씻어낼 수 있다

우리가 업장에 깊이 빠지는 것을 피하려면 자신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그것들이 발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습관은 일단 나오면 더 강해지기 마련이고, 그럼 우리는 전보다 더 화를 잘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우리가 아무 죄도 없는데 누명을 덮어쓰고 사람들에게 심하게 맞거나 권력의 탄압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번 생에서도 핍박을 받고 맞게 되었는데, 이

번에는 상대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억누르는 게 맞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전생에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았던 것이 너무나 싫었었기 때문에 이생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자 그걸 참지 못하고 복수하거나 대적하려 합니다. 원한도 더 깊어지고 그런 원한에 찬 분위기도 더욱 두꺼워지고 견고해져 결국에는 원한에 찬 개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누군가에게 앙갚음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바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 언제 끝이 나겠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새로운 사상을 배울 때마다 우리의 두뇌 속에는 그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채널이 형성됩니다. 여기에는 원한을 저장하고 저기에는 사랑을 담고 여기엔 질투를, 저기엔 명리심을 하는 식으로 각 부분마다 각기 다른 품성을 담습니다. 습관이 많을수록 우리 두뇌 속의 그런 상자와 채널도 가득 차게 되지요.

원래 이런 채널, 상자는 자체 분해가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들이 서로 합쳐져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두뇌에는 ‘회색질’이란 것이 있어서 이 상자, 채널들을 메우고 있고, 이 회색질은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행동, 새로운 습관을 모두 기록해 원래는 텅 비어 있던 채널을 메웁니다. 전적으로 기록만 하는 컴퓨터와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한번 익힌 것들이나 새로 배운 품성들은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나쁜 습관들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엔 달리 씻어낼 방법이 없지요! 여러분은 세뇌(洗腦)에 대해 들어 봤을 겁니다. 하지만 언어로 뇌를 씻어내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아주 작지만 그 어떤 것도 기록할 수 있으며, 아무리 많은 양을 기록해도 문제없습니다. 기록한 게 너무 많으면 제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매일 잡념이 떠오르는 건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기록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여러분의 뇌를 언어로 씻어낸다면 채널, 상자를 더 보태는 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은 이미 오래된 선입견과 생각들로 꽉 차 있는데, 내가 거기에 새로운 것을 더한



다면 서로 뒤죽박죽 뒤섞여 아무 도움도 안 될 것입니다. 오래된 것은 그대로 계속 작용하고 새로운 것들도 계속 발전할 테니 더 복잡하기만 하지요.

그래서 내가 “선(禪)은 진정 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며, 관음법문을 전수하는 동안 말을 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보태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엉킨 매듭과 문제들이 있어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만 그 응어리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불교 신자가 아니고 『열반경』이나 『금강경』을 전혀 모른다면 내게 경전에 관련된 질문도 할 리가 없고 나도 그런 것을 설명하느라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수집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없애고 소각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음법문이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관음법문은 진동력이며 이 전력, 신의 힘은 잡념과 그릇된 개념들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 채널이나 상자도 보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생각으로 다른 생각을 지우려 한다면 분명 저항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래된 생각이 지워지지는 않지요! 그저 또다른 것을 보낼 뿐입니다. 결국에는 머릿속이 더 복잡하고 비좁아져서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큰스승들이 말하길, “학문이 높고 지식이 많을수록 도를 얻기가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이 가득 쌓아 놓아 아무것도 발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좋고 나쁜 것들이 뒤엉켜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지워지지 않아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힙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아는 것이 많을수록 깨닫기 어려운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관음법문만이 논리적입니다. 관음법문은 공안(公案)도 아니고 뭔가를 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뇌 속에 더 많은 것을 보낼 뿐입니다. 우리는 보태는 대신 그것들을 씻어냅니다. 비록 내가 여러분에게 오불을 외우고 관광을 하라고 하지만 ‘관음’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불을 외우고 관광을 하는 것 역시 또다른 것을 보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다른 것들을 통제하고 세속의 번뇌를 잊게 해주는 것이긴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그와 결판을 내거나 욕을 하고 싶어질 때 오불을 외우면 그 원한을 잊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선량한 오불로써 우리의 잡념을 다스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들게 할 뿐,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불이나 아미타불을 외운다고 그것이 씻겨지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오불을 수만 번 외우면서 그런 잡념을 다스릴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씻어내려면 ‘관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불조차 씻어내야 하지요! (대중 박수) 여러분이 이해하니 정말 기쁘군요!

그래서 내가 누구든 매일 관음을 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깨달았다거나 성불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건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불하면 명상이 필요 없다고도 말하는데, 그것은 보통 우리가 두뇌를 혹사해 오불을 외우는 그런 보통의 명상이 필요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두 이름을 외우다 잊어버리고, 한 구절 외우고 나선 나머지 네 개를 잊어버리고, 첫 번째 이름을 외우면 다섯 번째 이름은 잊어버리는 그런 식의 명상을 뜻하는 거죠. “아이고! 잡념이 너무 많네. 세상에! 방금 그 사람은 너무 싫어. 세상에!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년더리가 나.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 내일 그와 확실히 담판을 져야겠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는 식으로 잡념과 싸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분투하자니 정말 고생스럽지요. 이런 것을 명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고 잡념과 미움, 습관을 억누르기 때문일 뿐입니다.



성불한 사람은 끊임없이 명상한다

성불하고 나면 명상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분투하지 않을 뿐 여전히 명상을 합니다. 앉아서 명상하지 않아서 명상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상할 때 자신이 명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성불한 사람은 명상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굳이 애쓰거나 힘들일 필요가 없지요. 노자가 말한 ‘함이 없이 함’이란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루 종일 앉아서 세상에 관여치 말고 나라 일도 돌보지 말고 가족도 돌보지 말고 몸도 씻지 말고 빨래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함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대중 웃음) 그래서 만약 어떤 이들이 성불하고 나면 더 이상 명상할 필요가 없으니 하루 종일 앉아서 도박이나 하고 가라오케를 해도 된다고 하면 그건 마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미타불의 부처(佛)가 되는 게 아니라 부정(否)이 되는 겁니다. (*佛과 否는 발음이 비슷함.)

그러니 명상을 안 하고 오불을 외우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가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아수라 세계에나 어울리는 일로, 그가 속고 있는 겁니다. 부처는 명상을 하지 않지만 명상을 합니다. 왜냐고요? 세상을 축복하고 제자들을 축복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범부가 명상을 해도 이처럼 엄청난 공덕을 얻을 수 있는데 부처가 명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부처는 그의 임무를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가 이곳에 와서 명상을 하지 않는다면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역시 마음과 원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명상을 하면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정신적으로도 즐겁지 않습니까? 어떤 경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다 얻게 되지요!

먹는다고 신체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지만 그래도 신체가 허약합니다. 우리는 한두 시간 명상하면 정신적으로 매우 행복해지고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 역시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명상이 필요합니다. 먹는 것만으로는 육신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많이 먹는다 해도 부처로서의 수많은 임무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는 아주 조금 먹는 데다 그렇게 책임을 져야 하니 어떻게 명상을 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그는 명상을 합니다. 단지 우리처럼 애써 힘들여 명상하지 않을 뿐입니다. 부처는 매우 이완된 상태로 명상을 하며 앉자마자 바로 삼매에 듭니다. 앉지 않아도 삼매에 있지요! 그는 24시간 내내 삼매에 들어 있으며 수시로 명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러 ‘명상함이 없이 명상하다’, ‘선(禪)은 앉아 있는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자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 주기 위해 여전히 명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들 성불하면 명상하지 않고 세속의 즐거움만 누리는 줄 알 테니까요. 그러면 모두 똑같아지겠지요.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명상할 필요가 없으니 게으른 사람들도 자신이 성불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정말 멋진 구실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지요!

여러분은 석가모니불이 성불한 후에도 매일 명상했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불이 삼매에서 깰 때마다 제자들에게 설법을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목욕탕에서 나와서 설법했다거나 가라오케에서 노래하고 춤추다가, 혹은 도박을 하다가 나와서 설법했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요! 그러므로 경전을 보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수행이 나쁘고 크게 떠벌리고 명리심이 커지니 스스로를 해치는 노릇이지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

그러므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의 인내심

을 시험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선생이며 우리를 때리고 꾸짖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생입니다. 우리의 인내심을 훈련시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기에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만약 그러한 행동들이 대중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해를 주는 경우라면 그들을 저지할 방법을 생각해야겠지만, 그가 우리만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밑바닥까지 시험하도록 두십시오. 시험이 어려울수록 우리에겐 더 좋습니다. 마치 금은 불 속에서 제련되어야 빛나듯이 말입니다.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지요!

난 여러분에게 말만 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이런 것을 실천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모범을 보여야 하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그토록 비방하는데 왜 여여부동하는지 묻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참을 수 없다면 무엇을 참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욕을 가르치겠어요? 대중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을 멈출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나 자신에게만 해가 된다면 상관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고가 무엇이고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예고가 더 견고해져서 벽처럼 여러분을 가두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나는 이 사람이다, 나는 이렇다고 믿게 될 것이며, 그것이 예고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

다 보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곤 결과적으로 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말리지 않는다면 점점 더 나빠지겠지요. 우리는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곤 거기서 행복을 느낄 것이며 결국엔 습관이 돼 버릴 겁니다. 흡연이나 음주처럼 말이지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습관에 깊이 빠져들어 더 많이 피우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세생생 축적한 습관에도 더 많은 것을 보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해지도록 내버려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나쁜 습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줄이기는커녕 더 보탠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다스리겠습니까? 줄이고 싶어도 줄일 방도가 없으니 언제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수집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는 데 세세생생 쌓아 온 그 견고한 습관과 전통은 어떻게 씻어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초세계의 힘, 이 관음법문의 진동을 사용해야만 이것들을 빨리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관음을 해야만 정말 '뇌를 씻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예고를 어떻게 피하느냐고 내게 묻는데, 관음을 더 많이 할 것을 권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자신을 점검하고 다스리고자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더 많은 습관을 보태거나 반복하지 말고 피할 수 있다면 그만두십시오. 자신의 예고를 모르는 경우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음을 많이 하십시오! 관음을 많이 하십시오! 관음을 많이 하세요! 관음은 우리를 자동적으로 씻어 줍니다. 그 외 판 방법은 없습니다. (대중 박수) 이제 관음법문이 진정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았을 겁니다! 관음법문이 없다면 우리의 그 많은 습관들은 결코 씻어낼 수 없습니다!



감로법어

습관을 깨뜨려 업장에서 벗어나라

칭하이 무상사/ 1991. 6. 28.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업장은 꼭 죄악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장은 습관에서도 생깁니다. 우리 두뇌는 우리를 속여 비슷한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만족스럽거나 불쾌한 것들, 불행한 일들이 있으면 모두 돌파해야 하며 자신의 습관에 집착하거나 묶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간단하지요.

관음의 힘

칭하이 무상사/ 1993. 10. 22.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국제 선사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83

오직 관음을 통해서만 모든 의식의 경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을 수행해도 '소리'와 접촉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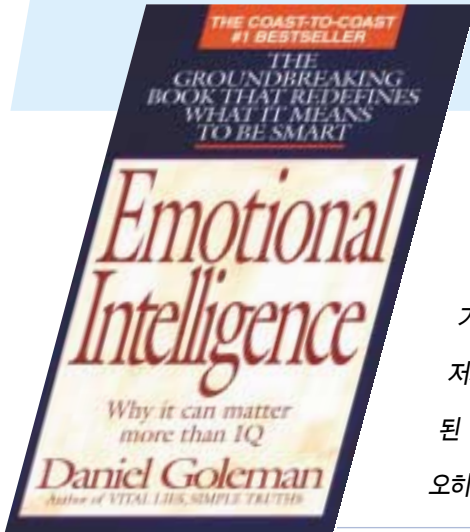
많은 명상법들이 지력의 경지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안 참구나 램프에 집중하는 명상법으로도 빛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은 그다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빛의 등급은 고양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소리'의 등급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빛을 관해 삼매에 들어가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음류와 접촉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들도 관음을 하게 돼 빛과 소리를 동시에 갖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 힘들이지 않고 소리와 접촉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 소리와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유능한 친구, 안내자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훨씬 쉽습니다. 오늘날에 있어 '노하우(know-how)'는 성공의 열쇠이며, 그것은 수행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삼매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음류의 혜택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음류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소생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8. 5. 23. 멕시코 멕시코시티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27

세상일에 치여 피곤해지고 끊임없이 분투하느라 지쳤을 때, 또 정신적인 피로로 힘이 들 때는 잠시 앉아서 관음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서 기쁨이 요동치는 것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성 지능을 뛰어넘어 성공적인 삶으로



포모사 타오웬 찬성치 사형

하버드 대학의 대니얼 골먼 교수는 행위 및 뇌 과학의 전문
가로서 1995년 『정서면에서의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저서를 출판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IQ(지능 지수)가 성공적인 삶의 주된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EQ(감성 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조명하고 있다.

이른바 감성 지수는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책에서는 대뇌 측두엽 깊숙이 정서를 기억하는 중심인 편도체(Amygdala)에 대한 발견을 다루고 있다. 이 편도체는 외부 환경의 자극을 받으면 즉시 인체가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도록 작용한다. 대뇌의 전두피질은 편도체와 기타 두뇌 조직에서 보내 오는 신호를 접수해 보다 심화된 반응을 보이거나 앞서 편도체가 만들어 낸 정서적 반응을 수정한다. 우리 삶의 모든 습관과 정서는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은 이러한 곳들에 저장되는데,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두뇌는 반응을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든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알려 준다. 또 같은 자극을 연속해서 받게 되면 뇌는 이런 자극에 대해 생겨난 신경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많아져서 반응도 훨씬 빨라진다. 이것이 이른바 ‘오래된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는 이치인 것이다.

이 책에서는 약물 치료나 행동 치료 등 사람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많은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만 매번 성공적이지는 않다. 스승님은 초창기 강연인 ‘에고와 관음’에서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으로 오

래된 습관을 고치려 한다면(현재는 대체적으로 행위 치료나 심리 치료의 방식을 사용한다.), 그건 두뇌에 새로운 정보를 넣어 오래된 것을 대체할 뿐이라고 매우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다. 결국 이 새로운 정보는 새로운 집착을 형성하고, 어느 날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 또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그것을 대체해야 한다. 그래서 스승님은 우리가 정말 자신의 습관과 집착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관음’을 해서 높은 진동력으로 축적된 습관과 정보를 말끔히 씻어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알려 주셨다.

이것은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현대 물리학의 관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르면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각기 다른 진동을 가진 파동 입자에 의해 형성된다. 이에 따라 생각 역시 에너지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으며, 스승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음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현상은 각기 진동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를 지닙니다. 어떤 것은 눈에 보이고 어떤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만약 낮은 진동을 가진 것이 높은 진동과 접하게 된다면 낮은 진동은



높은 진동에 따라 조정된다. 부정, 슬픔, 낙심과 같은 좋지 않은 생각들은 그 진동이 낮은 반면 행복과 기쁨 등은 진동력이 높다. 두뇌 세포가 그런 좋지 않은 정보를 기록할 때는 진동력이 낮아진다. 이때 세포가 진동수가 높은 음류와 접촉하게 된다면 그 낮은 주파수도 자연스레 고양돼 낮은 진동력의 정보들은 자연스

레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고 나면 편안해지고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이다.

그러니 스승님께서 “관음은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만물은 음류에서 생겨났으니,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치료하고 교정하려면 음류에 의지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스승과 제자 사이

사랑의 포옹

관음사자

스

승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늘 자연스럽게 행동하십니다. 한번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스승님을 따라 미국에 간 적이 있었다. 하루는 모두들 놀러 가는데 나는 전화를 받아야 해서 함께 갈 수 없었다. 나중에 돌아오신 스승님은 내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몹시 가슴 아프신 듯 나를 꼬옥 안아 주셨다.

그 전날 밤, 나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발밑에서 그만 잠이 들어 버렸다. 누울 곳이 있는 게 어디냐 싶어 나는 남의 발밑이건 말건 전혀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너무나도 세심하신 스승님은 그런 내 모습을 보시곤 다음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서로를 잘 보살피지 않는군요. 그녀에게 자리도 하나 마련해 주지 않고 발밑에서 자게 하면서 고생한 사람을 돌보지 않다니!” 나는 그 순간 스승님은 제자들의 잠자리가 어떤지까지 신경을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씀을 끝낸 스승님은 다시 한 번 나를 안아 주셨다. 당황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스승님은 제자들을 돌보실 때 이처럼 매우 세심하고 극진하기 이를 데 없으시다.

스승님은 정말 제자들이 보내는 내면의 메시지를 모두 감지하고 계셔서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 이를테면 누가 스승님을 많이 보고파하는 걸 내면으로 아시고는 일부러 그 사람을 불러 얘기를 나누신다든가 아니면 한동안 당신 곁에 두시면서 그의 갈망을 충족시켜 주신다.

최고의 무공

평 사저/ 프랑스 파리



나는 파리에서 동수들과 함께 채식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 2002년 12월 28일 저녁, 어느 때처럼 집이 먼 동수들은 먼저 퇴근을 하고 마지막 손님도 식사를 마치고 떠나자 나는 식당 문을 반쯤 내리고 영업을 끝나 손님들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렸다. 그런 후 식기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고 장부를 정리한 후 집에 갈 채비를 했다.

집에 돌아가기 전 갑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계산대로 다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다.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열 예닐곱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네 명이 반쯤 열린 출입구 밑으로 들어왔다. “죄송하지만 영업이 끝났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내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내 쪽으로 다가왔다. 두 명은 계산대 앞에 서고 한 명은 금전 등록기 쪽으로 접근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니까?” 하고 묻자 그와 동시에 네 번째 사람이 내 뒤로 와 한 팔로는 내 목을 조이고 다른 손으로는 내 입을 틀어막으며 일행에게 외쳤다. “현금 서랍을 꺼내! 현금 서랍을 꺼내라니까!”

나는 이들이 문 밑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식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인질로 잡혀 있는 동안 내 마음속에선 한 가지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잘하면 죽겠구나.’ 이에 자연스레 눈을 감고 스승님을 생각하자 매일 명상하던 때처럼 마음이 평온해지고 몸도 이완되었다.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로부터 몇 초 후, 미처 오불을 외울 틈도 없이 기적이 일어났다! 나는 바로 풀려났고 금전 등록기를 들고 있던 아이도 그것을 바닥에 내

려놓고는 네 명의 강도들이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은 채 황급히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것은 3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다. 일반 사람이라면 믿기 어렵겠지만 스승님을 따라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우리로서는 무수한 ‘신기한 감응’ 중 한 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일이 있던 후 내 가슴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스승님의 힘에 감사드리고 관음법문에 감사했으며, 심지어 강도 짓을 하러 온 네 명의 소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들의 참여로 인해 ‘함이 없는 함’을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언젠가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관음법문은 우리 내면과 외면의 모든 부정적인 힘을 정복할 수 있는 일종의 무공입니다.” 이 신기한 무공은 참으로 경탄할 만하다. 나를 위험에서 구해 줬을 뿐 아니라 내 내면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입문하기 전 나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쉽게 동요하고 낙심도 잘하고 재난과 죽음을 두려워했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내게 있어선 두렵기 짝이 없는 대상이었다. 10년 전 스승님께 입문했을 당시 나는 47세로 이미 개성과 습관을 쉬이 고칠 수 없는 나이였다. 하지만 강도가 들이닥친 그 위험한 순간 보였던 나의 반응과 마음가짐은 내 의식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음을 깨우쳐 주었다. 당시 나는 전혀 두렵지도 않았고 위협을 느끼지도 않았으며 저항하거나 발버둥치지도 않았다. 죽음을 생각하긴 했지만 오히려 평온해지기만 했다. 또한 외부에 도움을 청할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고 거의 본능적으로 내면의 스승과 관음법문에 도

움을 청했을 뿐이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이 세상에서 관음법문보다 나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몇 년 동안 하루 또 하루 수행을 하다 보니 이제 나 자신에 대한 고무적인 성과를 보게 되었다. 나의 이 작디작은 수행의 성과가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스

승님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얇고 부드러운 티슈가 되기를, 스승님의 아픈 등을 안마하여 그 고통과 슬픔을 덜어 드리는 재빠른 손이 되기를, 또한 부족한 제자들로 인해 끊임없이 고생하시는 스승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 '라고 또 바란다.

신의 은총으로 화마에서 무사하다

올가 몰나 사저/ 호주 캔버라 (원문 영어)

2003년 1월 18일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서 엄청난 산불이 나는 바람에 530여 가구가 피해를 입고 네 명이 사망했으며 집을 구하려던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와 집은 이 화마에서 무사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었다! 정말이지 천우신조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1월 18일 당일 아침 9시에 캔버라 근교인 듀피에 사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이렇게 일찍 전화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좀 심상치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냥 “나 좀 다른 데로 데려다 줄래?” 라고만 말씀하셨다. 평소, 특히 주말에 집을 떠나는 것을 싫어하시는 어머니의 습성을 알고 있던 남편은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상관없어. 아무데나 데려다 주기만 하면 돼.” 하고 말씀하셨다.

남편이 곧 어머니를 모시고 도착하자 나는 바로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거나 하신 것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시며 “오늘 그냥 너희 집에 와야 할 것 같더구나.”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아무 일도 없

졌거니 생각해 버렸다. 그런데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가 매우 우울해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집이 걱정된다며 아무래도 돌아가야겠다고 하셨다.

듀피로 되돌아가는 일로 한참 얘기를 하던 중 전화가 올랐다.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적십자 직원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녀는 현재 산불이 교외까지 번져서 위험하니 듀피에서 어머니를 모셔 오라고 했다. 우리가 그 전화를 막 끊자마자 이번에는 딸인 인디코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금 라디오 뉴스를 들어 보세요.” 산불이 이미 듀피까지 번졌던 것이다. 내가 전화를 끊자 아들 아르페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엄마, 듀피가 위험해요. 할머니를 모셔 와야 해요!” 하고 외쳤다.

어머니가 약을 먹으러 집에 가야 한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셔서 남편은 오후 3시쯤에 어머니를 차에 모시고 출발했다. 그러나 듀피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을 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기세를 떨치고 있었다. 연기로 가득 차 가로등이 자동으로 켜진 상태였으며 가시거리가 10미터도 안 되었다. 반대 차선은 온통 화염에 싸여 나무, 풀, 집 할 것 없이 모두 불타고 있었

다. 남편은 불길과 연기 때문에 결국 차를 되돌려야 했다.

나중에 아르패드가 약을 가지러 어머니의 집에 가기로 했다. 아르패드는 듀피에서 경찰에게 세 번이나 제지당하며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마침내 그가 어머니의 집에 도착하고 보니 옆집에 이미 불이 붙어서 맹렬히 타고 있었다. 아들과 일행은 어머니의 집에 호스로 물을 뿌려 불길이 번지지 못하게 하였다. 집안은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온 연기와 그늘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뒤뜰의 풀과 과일 나무들은 집에서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불타고 있었다. 아들은 한밤중까

지 할머니의 집을 지키기 위해 불과 싸웠고, 신이 보우하사 집은 무사할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이 신의 기적이라고 믿는다. 그 덕분에 어머니의 생명과, 아버지와 평생 고락을 함께했던 집이 무사할 수 있었다. 또한 신의 도움의 손길은 시드니와 캔버라의 동수들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동수들은 성금을 모아 어머니의 파손된 주방을 새로 칠해 주었다. 전능하신 신께서 이들의 자비로운 마음에 천 배로 보답해 주시고, 그들이 우리가 이번에 겪은 화재와 같은 끔찍한 재난을 겪지 않게 기도한다.

스승님의 도움으로 건강이 나아진 약혼녀

마리오 로베르토 플라티치/ 브라질

최근에야 스승님에 대해 알게 된 나의 약혼녀는 근 10년간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TTP)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 이 병은 혈장에 침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병이다. 약혼녀의 경우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TTP 환자였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들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병을 치료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들여 캐나다에서 전문의를 데려와야 했다.

그녀의 치료는 매우 힘든 것이었다. 특수한 의료 기구에 몇 시간이나 연결된 채 혈액에서 혈장을 빼내고 혈액 은행의 혈장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했다. 처음 세 번 정도 치료를 받을 때는 두 달도 넘게 입원해

야 했고, 게다가 백 번도 넘는 혈장 교환 때마다 진정제를 맞아야 했다. 그동안 그녀는 힘겨운 치료를 견디느라 매우 허약해졌고, 그에 따라 회복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에 그녀는 치료할 때 스승님의 사진이 든 목걸이를 걸고 스승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회복이 굉장히 빨라 입원할 필요도 없어졌다. 담당 의사들은 이런 급작스런 변화에 깜짝 놀라면서 뭐라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모두 스승님의 가피력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비록 약혼녀의 병이 큰 짐이기는 하지만 그녀의 삶은 스승님의 신성한 사랑과 도움으로 보다 편해지고 행복해졌다!



인류를 만물의 주인으로 만드는 지혜

칭하이 무상사/ 1991. 10. 26. 일본 (원문 중국어)

인도의 한 농부가 아이와 함께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어느덧 날이 저물려 하자 농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날이 어두워지네! 어서 연장을 챙겨서 가자. 빨리 서둘러!” 아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불안해하지 마세요. 집도 가깝고 길도 아는데 뭘 그리 초조해하세요?”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네가 몰라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단다. 호랑이나 사자도 두렵지 않지. 하지만 ‘밤’은 정말 두렵단다. ‘밤’이 오면 나는 꿈쩍도 못 하지. 나는 정말 밤이 무서워 견딜 수 없어.”

마침 사자가 그 근처에서 우연히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밤’이란 게 대체 뭐지? 어떻게 나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어? 한번 알아봐야겠군.’ 사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농부에게 다가가 ‘밤’이 어떤 것이길래 자기보다 무서운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날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고, 눈이 어두운 농부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채 어떤 동물이 가까이 오는 것만 보고는 그것을 얼마 전 도망간 당나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찰싹찰싹 때리며 말했지요. “하루 종일 찾아도 안 보이더니, 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감히 이제야 돌아오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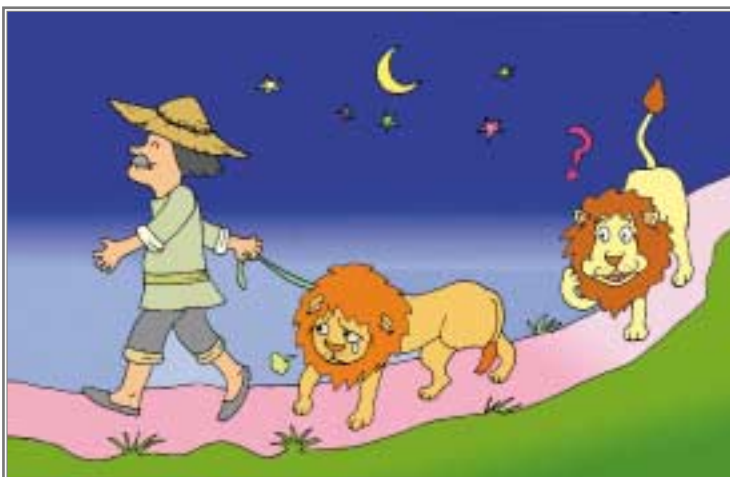
사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젠 죽었다! 무서운 ‘밤’에게 접근할 생각을 하다니 어쩔 난 이렇게 멍청할까? 방금 나를 때린 게 ‘밤’이 틀림없겠지? 이제 어떻게 하지?’ 사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농부는 다시 사자를 몇 번 후려치고는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다그쳤습니다. 사자는 무서워 죽

을 것만 같아 농부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농부는 여전히 사자를 당나귀로 착각했기 때문에 마당 한구석에다 사자를 매어 놓고는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사자는 배고픔과 추위, 두려움으로 밤을 꼬박 새우며 동이 트면 이 ‘밤’이 자기를 어떻게 처치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사자는 농부가 그 ‘밤’이라고 믿었던 거지요.

다음날 새벽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농부는 일어나 ‘당나귀’를 데리고 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마침 다른 사자가 지나가다가 이 사자가 농부 뒤를 고분고분 따라가는 우스운 광경을 보게 되었지요. 그 사자는 포로가 된 사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이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거지?”

“쉴! 큰소리 내지 말고 얼른 가 버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앞에 가는 건 ‘밤’인데 굉장히 무섭다고. 지난밤에는 나를 막 때리고 밤새도록 묶어 놔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게 했는데, 이젠 어디로 데려가는 건지 모르겠어. 넌 얼른 도망쳐. 그렇지 않으면 네 목숨도 위험





등 일해야 했습니다.

마침 먹을 것을 찾아 나온 호랑이 한 마리가 이 농부와 소를 발견하고는 누구를 먼저 먹을까 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호랑이는 문득 그 광경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참, 이상하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호랑이는 먹는 걸 잠시 미루고 옆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가 보기엔 소가 몸집이 크고 힘이 센데, 어쩐 일인지 작은 농부의 말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고, 얻어맞아도 감히 반항을 못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매우 이상하

하다고!”

다른 사자는 그 사연을 다 듣고는 말했습니다. “너 정말 웃기는구나. 이 바보야! 넌 사자야! 동물의 왕이라고! 넌 속은 거야! 네가 지금 한번 포효하면 누가 더 무서운지 대변에 알게 될걸.” 포로 사자가 이 사자의 충고를 받아들여 큰소리로 으르렁거리자 농부가 다가와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이미 그때는 날이 밝은 터라 농부는 사자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자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고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고 또한 엄청난 힘과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해서 마왕을 따르고 업장을 따라가지요. 그러면 해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군지 명확히 아는 어떤 영혼이 와서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해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스승의 역할입니다.

좀 전 이야기와 비슷한 어울락 얘기를 하나 더 들려주겠습니다.

한 농부가 소를 끌고 하루 종일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둘은 몹시 지쳤지만 일이 다 끝나지 않아 농부는 계속 소를 때리며 더 빨리 일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소는 콧김을 씹씩대고 침을 질질 흘리며 혀를 쭉 늘어뜨린 채 숨도 못 쉴 지경이었지만 죽을 등 살

다고 생각하며 뭔가 신비한 게 있는 것 같아 손도 못 대고 있었지요.

얼마 후 농부는 일손을 멈추고 한쪽에 가서 밥을 먹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이제야 겨우 숨을 좀 돌리고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에게 슬그머니 다가섰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불쌍하군!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도 그것밖에 못 먹다니. 나라면 절대 못 먹을 거야!” 그리고는 소에게 물었습니다. “이것 봐. 널 화나게 하려는 건 아닌데, 도저히 묻지 않곤 배길 수가 없군. 너는 이렇게 몸집도 크고 힘도 세고 날카로운 뿔도 두 개나 있으며 또 한 발로 농부를 죽일 수도 있는데 왜 계속 그의 말을 따르는 거지? 네가 반나절이나 죽도록 일했는데도 그는 때리거나 하고 계속 일만 시키다 이제 겨우 쉬게 해주고 말라빠진 풀이나 주잖아. 넌 대체 무슨 동물이 그러니? 왜 그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가 너보다 몇 배나 작은데 말이야!”

그러자 소가 대꾸했습니다. “뭘 모르는군! 내가 그보다 힘이 세고 크긴 하지만 이 작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무기는 정말 무시무시하다니까! 더 이상 묻지 마. 창피하니까. 우리는 이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호랑이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겨 말했습니다. “부



탁이야. 제발 말해 줘. 이런 얘긴 처음 들었어. 나는 전에 여기 와 본 적도 없고 이런 상황을 본 적도 없거든!”

소는 느긋하게 천천히 풀을 씹으며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참나! 대체 왜 이런 걸 묻는 거지?” “알고 싶어서 그래. 이런 건 보기 드문 기회잖아! 앞으로 언제 이런 상황을 만나겠어? 나는 보통 산속에 있어서 이런 걸 볼 기회가 없다고. 오늘도 큰맘 먹고 나와서 볼 수 있었던 거라고!”

그러자 소가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니 말해 주지! 그 무기는 바로 지혜야. 인간은 이 지혜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아무리 크고 사납고 힘이 센 우리 같은 동물도 죄다 인간에게 부림을 당하는 거야. 알겠니?” “모르겠는걸! 그런 말은 여태껏 들어 본 적이 없어!” 호랑이의 말에 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이제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말고 제발 잠 좀 자게 내버려둬.”

호랑이는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 대체 이 무기가 뭐길래 그렇게 무서운 거지? 한번 알아봐야겠어. 우리 엄마도 그런 얘긴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만약 내가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 그 누구보다도 강해질 수 있을 거야. 학교에서도 이런 무기는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

그래서 호랑이는 농부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전에 그 어떤 동물에게도 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 말을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무섭고 두렵기도 하면서 인간에 대한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농부가 돌아오자 호랑이는 합장을 하며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듣자 하니 당신에게는 지혜라는 무기가 있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처럼 크고 힘센 동물도 다스릴 수 있다던데, 그걸 좀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여태껏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을 들긴 했지만 아직 반신반의인 상태랍니다. 당신은 이렇게 몸집도 작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무기를 갖고 다니며 우리처럼 큰 동물을 지배할 수 있나요?”

“물론 그 무기는 아주 커서 만날 몸에 갖고 다니지는 못하지. 집에 두고 다녀.” 농부는 말했습니다.

“그럼 갖고 오셔서 제게 좀 보여 주세요!” 호랑이의 말에 농부가 말했습니다. “보여 주고말고. 하지만 네가 날 속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걸. 네가 정말 내 무기를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나를 속여서 집에 보내 놓고 소를 잡아먹거나 끌고 가려는 거지. 내가 돌아와서 너도 안 보이고 소도 안 보이면 애써 힘들게 그렇게 큰 지혜를 가져온 나는 뭐가 되겠니? 그러니 못 하겠어.”

“그럼 리가요! 전 정말 당신의 그 ‘지혜’라는 무기를 보고 싶을 뿐이에요.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발 부탁이니, 집에 가서 갖고 와 좀 보여 주세요!” 호랑이는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소도 잡아먹지 않고 여기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좋아. 하지만 날 믿게 하려면 널 나무에 묶어 두게 해줘. 그래야 가져오겠어. 그렇지 않고 내가 가 버린 뒤 네가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해!” 농부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서 나를 묶으세요!” 호랑이는 두 발을 내밀며 농부에게 침낭쿨로 나무에다 묶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떠나려고 하자 재촉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농부는 큰 몽둥이를 가지고 쏠살같이 돌아와선 호랑이를 때리며 말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나의 지혜다.” 그러고는 호랑이를 때려 죽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소는 그 모습에 숨이 넘어갈 듯 웃어댔습니다! 웃다가 그만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이가 다 빠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소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어울락 이야기는 앞서 말한 사자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좀 다르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정말 동물의 주인입니다. 아주 영광스럽게도 동물의 왕이 될 수 있었지요. 신은 원래 우리에게 동물을 ‘보살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영광스럽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밤’에 대한 이야기가 더 귀엽지요. 그렇지 않나요?



채식하는 고양이 빅헤드 이야기

구술: 포모사 타이베이 류메이원 사저
기록: 스루이춘 사저 (원문 중국어)

고양이가 채식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은 들어 본 적도 없다. 고양이는 굶어 죽을 망정 채식은 못 할 것이다!” 그러나 류 사저가 키우는 ‘빅헤드’라는 이름의 이 신기한 고양이는 채식을 할 뿐 아니라 먹는 것도 깔끔해서 육류 향이 첨가된 채식 제품은 먹지도 먹는다. 다음은 이 예사롭지 않은 고양이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다.

류 사저와 빅헤드의 만남은 신의 안배였다. 입문 후 류 사저는 동물을 키우지 않았다. 채식도 해야 하고 동물에게서 나는 냄새도 싫었던 까닭이다. 그런데 새로 이사하던 날 이사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보니 아파트 계단에 작고 깡마른 들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다. 그래서 사저는 며칠간 그 고양이를 위해 우유와 크래커를 접시에 담아 계단에 놓아두었다.

류 사저는 집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하루는 이 고양이가 학생 뒤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왔다. 청결을 좋아하는 사저는 이 털이 빠진 고양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결국 문밖으로 내보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동수들이 단체명상을 하러 왔는데, 그 중 한 동수가 이 가여운 고양이를 키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했다. 다음날 그녀는 그 고양이가 또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문을 열어 주며 말했다. “나랑 같이 살고 싶으면 너도 나처럼 채식을 해야 해.” 그러고선 속으로 열을 세면서 그 안에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문을 닫아 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여덟까지 션 때 고양이는 전혀 급할 것 없는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다. 그

리고 그때부터 이 집의 일원이 되었다.

이 채식 고양이는 무엇을 먹을까? 아마 모두들 궁금하리라 믿는다! 빅헤드는 오이, 알파파 싹, 파파야, 감, 사과, 배, 샐러리, 양배추, 토마토, 채식 고기, 과자, 심지어 화분에 심어 놓은 스킨답스까지 먹는다. 그 중 오이와 알파파 싹, 그리고 새콤달콤한 음식을 특히 좋아하며, 요즘엔 새로운 메뉴가 속속 생겨나고 있는 중이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매우 담백한 맛을 좋아해 육류 향이 첨가된 채식 음식은 먹지도 않는다니, 정말 신기한 고양이! 모두들 알고 있다시피 고양이 에겐 어금니가 없다. 그럼 빅헤드는 어떻게 음식을 씹을까? 류 사저는 먼저 음식을 잘게 깨물어 쪼갠 후 녹두알만한 크기로 만들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먹인다. 그러다 보니 한끼를 먹이는 데 보통 한 시간 정도 걸린다. 처음엔 강약을 조절하지 못해서 사저의 손가락을 깨물기도 했지만, 이제 이 영리한 고양이는 혀로 핥는 방법을 터득해서 주인의 손을 깨물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것만 봐도 동물 역시 감정이 있고 이해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빅헤드는 처음 동물병원에 갔을 때 굉장히 방어적이고 사납게 굴더니 세 번째쯤에는 온순하고 조용해져 수의사에게도 협조적으로 나왔다. 고양이가 채식을 한다는 걸 믿지 않았던 의사도 나중엔 웃으면서 빅헤드가 곧 ‘득도’할 것 같다고 했고, 이 인연으로 스승님도 알게 되었다. 꼼꼼하게 치료를 받고 나자 빅헤드의 털도 다시 나기 시작했고, 채식을 한 덕분에 몸에서는 애완동물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는다.



빅헤드는 매우 영적인 ‘관음 고양이’다. 류 사저의 집에서 단체명상이 있을 때는 조용히 동수들 사이를 돌곤 하는데, 어떤 사형은 명상을 마친 후 자기 무릎에 마치 명상하듯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빅헤드를 발견하기도 한다. 단체명상이 끝난 후 동수들이 떠나고 나면 이 영리한 고양이는 동수들의 방석에 일일이 앉아 보면서 그 가피를 즐긴다. 또한 류 사저의 알람시계 노릇도 해서 아침마다 명상하라고 깨우는 바람에 류 사저는 이불 속에서 꿈지락거릴 수도 없다!

채식을 한 후 빅헤드는 온순하고 낙천적으로 변해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서 귀여움을 받는다. 반면 아주 예민하기도 해서 낯선 사람이 오면 숨어 버리고 동수들이 오면 얼른 뛰어나가 반긴다. 사저의 학생들이 오면 숨는 데 반해 동수들의 아이들이 오면 함께 어울려 뛰

놀고, 아이들이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다. 정말 사랑스럽기 그지없다!

이제 빅헤드는 류 사저의 집에서 행복하고 한가로이 지내고 있다.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바닥에서 미끄럼 타기를 좋아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즐겁게 재주넘기도 하곤 한다. 류 사저 역시 빅헤드로부터 사랑과 인내를 배웠을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영성을 갖고 있으며 다만 다른 언어로 말할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빅헤드는 애완동물도 채식할 수 있으며, 채식을 하면 더 건강하고 털도 더 예뻐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했다. (뉴스잡지 134호 ‘효과 만점, 채식으로 개 키우기’ 참조.) 여러분도 류 사저처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은가? 아마도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동물이 이 다음 차례의 행복한 채식 개, 채식 고양이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개

글: 관음사자

많은 개들이 사람들의 영적 오오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는 짓고 어떤 사람에겐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마다 그런 수행의 힘, 혹은 다양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칭하이 무상사~

2002년 5월 7일 버스를 타고 파마나 국경을 넘을 때였다. 현지 세관 직원들은 승객들에게 짐을 일렬로 정렬하라고 지시하더니 전문 훈련을 받은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와 짐 사이를 돌며 마약 소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 개는 자기 임무에 충실하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가방마다 살살이 검사했다.



그런데 내 가방 두 개를 지날 땐 냄새 한번 맡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었다. 한쪽 방향으로 끝까지 갔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검사하

는데 이번에도 내 가방은 그냥 지나쳤다. 다른 승객들의 가방은 철저히 검사하면서 내 가방은 두 번이나 그냥 지나친다는 게 너무나 신기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이 개는 무슨 이유로 내 가방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는 걸까?’ 만약 이 개가 영민해서 내 가방을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걸 미리 알고 지나간 거라면 그것도 일리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가방들도 다 통과했으니 그들도 마약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 개는 ‘전문가의 코’로 다른 가방들은 다 검사했었다. 그러니 나로서는 가방 안에 있던 스승님의 사진이 빛을 발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내 가방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표시가 가방에 붙어 있었을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였다. 그곳 센터에 있는 ‘장주’ 개도 굉장히 영민해서 동수와 동수가 아닌 사람을 정확히 구별했다. 센터 정문에서 100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구별할 정도였다. 비입문자엔겐 사납게 짖으며 내쫓으려 하고 동수인 경우엔 달려나가 반갑게 맞아 주며 결코 짖는 법이 없었다.

내가 센터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 개는 한번도 나를 향해 짖지 않았고 수시로 나를 경호해 주기까지 했다. 때로는 내 방이나 사무실 밖에 웅크리고 있기도 했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었고, 내가 센터 안에서 좀 먼 곳에 가려고 하면 즉시 따라 나섰다. 그 개는 나에게뿐 아니라 센터를 방문하는 다른 관음사자들에게도 무척 살갑게 굴었다. 몸집이 큰 이 개가 매일 지극정성으로 센터를 순찰하며 호법 노릇을 톡톡히 해내서 사람들은 때로 이 개에게 물릴까 봐 겁을 내기도 했다.

몇몇 동수들의 말을 들어 보면 그들이 입문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짖으며 물려고 하더니 입문하고 나자 다시는 짖지 않았다고 한다. 입문을 하면 어떤 특별한 표시나 진동력이 생겨 개들이 그 명확한 차이를 감지하는 것 같다. 하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는 듯한 몇몇 동수들이 센터에 오면 짖기도 한다.

이 개는 텔레파시 능력도 있어서 그 개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알아듣는다. 한번은 어떤 사제가 급한 일이 있어 밤늦게 관음사자를 찾아왔는데 정문 수풀 속에 있던 그 개가 얼른 달려와 사자를 맞아 주었다. 사제가 먼저 들어가라고 하자 개는 즉시 시키는 대로 했다. 또 한번은 이 사제가 센터 소유의 차를 처분하는 일을 맡게 돼 구매자를 데려와 차를 견인해 가게 했다. 그러자 이 개는 차 주위를 이리저리 뛰면서 어쩔 줄 몰라했다. 사제가 스승님의 지시로 차를 파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그제야 바로 안정을 찾고는 가만히 옆드려 있었다. 사제가 현지 언어인 스페인어가 아닌 중국어로 말했는데도 개는 그 말을 다 알아들었던 것이다. 하루는 내가 속으로 이 개는 책임감이 무척 강하긴 한데 애교를 부리지 않는 게 아쉽다고 생각했더니, 잠시 후 내게 다가와 놀아 달라는 듯 코로 내 발을 콕콕 찌르기도 했다.

원래 그 개는 제발로 센터를 찾아 들어온 개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개가 신의 특명을 받아 센터를 수호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농담 삼아 말하곤 했다. 그 개와 모습이 똑같은 개 한 마리가 종종 이 개를 만나러 센터에 오기도 했는데, 그 친구가 떠나도 센터의 개는 계속 센터에 남아 결코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어디 놀러 나가는 일도 없었다.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은 이 개는 얼마 전 다른 누군가가 센터를 잘 돌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곤 센터의 작은 시내 옆에서 홀로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들 모두 그 개를 너무나 그리워했다!

스승님은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많은 개들이 사람들의 영적 오오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는 짖고 어떤 사람엔겐 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마다 그런 수행의 힘, 혹은 다양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칭하이 무상사/ 2001. 12. 26. 미국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선사 -원문 영어, 뉴스잡지 131호) 이 두 마리의 개를 보면 스승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어미 뱀장어의 보호 본능

중국 고대 민간설화

옛날 중국에 주예라는 서생이 살았다. 하루는 그의 친구가 주예가 가장 즐기는 싱싱한 뱀장어를 몇 마리 가져왔다. 마침 별다른 일도 없었던 주예는 오랫동안 묵혀 두었던 요리 솜씨를 발휘해 담백한 뱀장어 탕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중 한 뱀장어를 솥에 넣고 국이 끓기 시작하자 뚜껑을 열어 본 그는 매우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뱀장어가 꼭 활처럼 머리와 꼬리는 국물에 잠겨 있고 배는 위쪽으로 휘어 있었던 것이다. 주예가 하도 이상해서 그 뱀장어를 꺼내 배를 갈라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뱃속에는 알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 어미 뱀장어는 뱃속의 알들을 보호하려고 뜨거운 물이 배에 닿지 않게끔 용을 쓰다가 활처럼 흰 채 죽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주예는 망연자실하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는 뱀장어조차 새끼를 보호할 줄 아는데 자신은 만물의 영장이면서도 어머니께 효도 한번 변변히 못 했다고 깊이 뉘우쳤다. 주예는 큰 감동을 받고는 남은 여생 동안 다시는 뱀장어를 먹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그후부터는 어머니를 더욱 공경했다고 한다.



감로범어

한 사람이 수행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다면 그의 내면은 평온해질 것이

고, 그의 평화로운 태도와 분위기는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웃, 그리고 주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럼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의 영향으로 평온해지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아, 맞아! 우리는 이렇게 평화로워야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행은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논리적인 것으로 신비롭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청하이 무상사/ 1994. 9. 8. 일본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444A



채식으로

정신을 한 차원 고양시키다

모토하루 사이토 사형/ 일본 도쿄 (원문 일본어)

스승님을 만나기 전 나는 채식과는 완전히 벽을 쌓은 삶을 살았다. 고기와 생선을 엄청나게 먹었고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웠으며 술도 마셨다. 나는 일본 정종과 생선회를 먹지 않는 사람은 진짜 일본인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때로는 술자리에 가서 앉은자리에서 구운 닭 30꼬치를 먹기도 했는데, 이런 식습관을 버리기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당시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해 고혈압 약의 양이 늘고 있는 상태였고, 두뇌가 마비되고 손이 떨리는 증상도 갖고 있었다. 몸의 상태가 심히 걱정이 되었던 나는 줄곧 관심이 있었던 척추 지압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 보기로 했고, 거기서 한 선생님을 통해 스승님을 알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고기와 생선을 끊기 시작했다. 대충 계산해 봤을 때 매일 300그램씩 고기를 먹는다 치면 일년에 100kg 이상의 고기를 먹는 셈이니 내 몸 속에 자리한 죽은 동물의 무게가 내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내 육신이 죽은 동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순간 바로 육식을 그만두게 되었다.

또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서 담배도 끊었고, 술은 마시고 나면 그 다음 날의 숙취 문제보다도 그 즉시 머리가 아팠기 때문에 술도 끊게 되었다. 그후 맛있는 채식 고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쉽게 채식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채식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다. 채식을 계속하는 동안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나의 이해력도 점점 깊어졌다.

나는 2001년 11월 3일에 입문을 하였다. 나 자신이 지속적으로 채식을 하고 수행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 있었다. 나에겐 뭔가를 계속해 나갈 끈기가 부족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고 영적인 방면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 나는 정말 이생에서 나의 본래면목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이런 의문점은 내가 수행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많은 동수들이 입문 전부터 지금까지 말과 행동으로써 내게 위안과 평온을 가져다주고 다독여 주었다. 이게 수행의 힘이 아닌가 싶다. 이제 나는 그런 힘을 보다 많이 얻고자 차로 두 시간 걸리는 단체명상에 한 달에 두세 번씩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남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비록 내일 죽는다고 해도 말이다. 그리고 내 삶을 매 순간 돌봐 주시는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사랑은 최고의 치료제

구술: 포모사 타이베이 천웨이화 사형

기록: 타이베이 뉴스그룹

1999년 5월 22일 ‘신을 알려면 신이 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한 이탈리아 로마 강연에서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할 때마다 그 사람과의 사이에, 그리고 그 주변에 위대한 천국을 하나 더 만들게 됩니다.” 천웨이화 사형은 의사로서 이 가르침을 평생 삶의 지침으로 삼아 명리를 구하지 않고 본분을 다해 오다가 얼마 전에는 뜻밖의 상을 받게 되었다. 포모사 ‘좋은 사람 좋은 일 협회’가 수여하는 ‘팔덕(八德)상’을 받은 그는 스승님의 크신 자비를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학문과 사랑의 불을 밝히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상 곳곳에 온정이 넘치고 세계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길 빌어 본다.

신의 가호로 스승님을 만나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높은 기대 속에 자란 나는 의대에 진학해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다.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 신이 언제나 나를 돌보고 계셨음을 깊이 느낄 수 있어 그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나는 수술대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생의 여정을 마치고 떠나는 환자들의 모습도 많이 보아 왔다. 이 기쁨과 슬픔의 극단적인 상황을 지켜보며 나는 생명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 혼란스럽기만 했다. ‘도대체 그 무엇이 생명을 주재하는 것일까?’ 나는 수차례 불교의 좌선에도 참석해 보고 절에 가서 절도 하면서 이 의문을 풀어 보려 했지만 마음속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바쁜 의사 생활을 하는 와중에 그에 대해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영국 옥스퍼드로 유학을 가서 포모사 『중앙일보』 해외판에 난 칭하이 무상사의 훌륭한 강연을 읽었는데, 그 순간 머릿속이 확연해지며 삶의 진정한 의미가 분명해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당시 『중앙일보』에 격주로 실린 스승님의 말씀은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영적 자양분이 되었다.

신의 안배는 참으로 절묘해서 내가 영국에서 공부하던 마지막 해에 포모사 국방의료원의 후배인 루어 사형이 옥스퍼드로 유학을 오게 되었다. 루어 사형은 그곳에서 단체명상을 위한 센터를 세웠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방편법을 배우고 명상과 채식을 시작했다. 그런데 입문을 준비하던 중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급히 귀국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두 차례의 수술 끝에 결국 돌아가셨고, 이때 나는 아버지께 스승님의 귀중한 가르침을 말씀드렸다. 아버지 역시 채식을 하기로 결심하시곤 입문도 바로 신청하셨다. 어머니의 죽음은 내게 수행을 서둘러야 함을 깊이 절감케 했다. 몇 달 후 유학을 마치고 오른 귀국행 비행기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완전 채식을 하기로 했고, 포모사로 돌아오자마자 가족 모두가 입문을 신청했다.

약 3개월 뒤 스승님이 포모사로 돌아오시자 우리 가족은 태풍이 몰려들고 있는 휴일에 입문을 위해서

시후로 향했다. 고속도로 천공에 시커먼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아내가 무서워하고 불안해했지만, 나는 살아 계신 스승께 입문할 수 있다니 수천 억 겁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기회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감사하게도 그날 우리 가족은 모두 입문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엄격하신 가르침과 입문으로 새 삶을 주신 스승님의 큰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술실에서의 성스런 축복

입문한 이래로 스승님은 나의 일과 환자들의 몸에 자주 가피를 내려 주셨다. 산부인과 일을 할 수 있다니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비 엄마들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기쁨의 빛을 늘 볼 수 있고 신생아실의 자장 또한 너무나 고요하고 아름다우니까 말이다. 산부인과 과장이 되면서부터는 때로 난산을 겪는 임산부나 특수한 증상을 가진 환자를 수술해야 했는데, 그런 수술을 할 때면 어떻게 수술해야 좋을지 몰라 어렵지만 할 때도 있다. 한 젊은 자궁근종 환자의 경우 자궁에는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종양만 제거하는 수술을 했었는데, 종양을 수십 개 떼어 내자 손에서 힘이 다 빠졌다. 하지만 여전히 제거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나는 막판엔 계속 오불을 외우며 스승님께 축복을 청했다. 그러자 나도 모르는 새 수술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

또 한번은 몇 년 전 간 질환에다 심한 빈혈과 혈소판 부족, 백혈구 수치가 낮은 합병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 왔다. 알고 보니 그녀는 임신 8개월이었다. 각 분야 전문의들은 함께 회진하면서 그녀의 가족에게 제왕절개든 자연분만이든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환자는 아기를 낳고 싶어했고, 나는 그녀의 상태를 점진한 뒤 자연분만을 하는 게 낫겠다고 결정했다. 나는 수혈, 항생제 투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출산하는 동안 오불을 외우며 스승님께서 아기와 산모를

축복해 주시길 기도했다. 결과적으로 당초 예상했던 산후 출혈 외에는 기적적으로 산모와 아기 모두 다 무사했다. 스승님의 위대한 힘과 관음법문의 도움이 없었다면 수술대에서 겪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영혼을 감동시키는 모성애의 빛

수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겪은 많은 감동적인 사건들을 통해 나는 사랑이 최고의 양약임을 배우게 되었다. 체구가 몹시 왜소했던 한 예비 엄마의 경우, 내가 태중의 5개월 된 아기가 선천성 언청이로서 장애가 있다고 알리자 그녀는 가족들로부터 낙태하라는 심한 압력에 시달리게 되었다. 나는 그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용감하게 아기를 지켜 낼 수 있길 희망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어려움을 가진 어머니로서의 경험을 나누도록 포모사 언청이 장애 어린이 재단의 자원 봉사자를 소개해 주었다. 결국 그녀는 강한 마음으로 아기를 지켜 내 출산했다. 태어난 손자의 얼굴을 본 환자의 시어머니는 출산으로 기진맥진한 산모의 상태는 염두에도 두지 않고 며느리에게 심한 질책을 퍼부었다. 나는 가슴이 찢개지는 듯 아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모성애의 찬란한 빛은 산모에게 모든 역경을 이겨낼 힘을 주었고 두 차례의 수술을 통해 아기에게 천진무구한 얼굴을 되찾아 주었다. 생명을 존중하는 그녀의 정신과 모성애의 빛은 너무나도 위대했다. 한 살 된 그녀의 아기 사진에서 사랑스럽고 천진한 미소를 볼 때마다 나는 크나큰 감동과 힘을 얻곤 한다.

또 한번은 젊은 산모가 임신 4개월째 들어서면서 양수가 터져 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은 아랑곳없이 세균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가 정상적인 산달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탄탄한 직장을 그만두고 4개월간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엔 양수가 나오면서 산모에게 세균 감염을 일으켜 패혈증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의사들은 의료분쟁을 피



하기 위해 보통 낙태를 권한다. 나는 속으로 스승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산모와 가족들에게는 위험성을 자세히 알리고 모두 함께 이 난관을 헤쳐 나가 작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희망했다.

스승님께 감사하게도 결국 산모와 아기는 안전하게 퇴원할 수 있었다. 퇴원 후 아기 엄마는 한 달 된 아기를 안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와서 아기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청했다. 온 가족의 그 행복한 모습을 보니 참으로 흐뭇했다. 경제적인 부담과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이 젊은 엄마의 위대한 용기와 사랑은 정말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다. 진료 활동을 하는 동안 수많은 사례를 통해 스승님께서는 내가 보다 깊은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 직업상 내가 남을 돕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심한 사랑으로 상을 받다

2002년, 작년 병원 측에서는 내가 12월 초에 ‘전국 좋은 사람 좋은 일 협회’의 ‘팔덕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알려 줬다. 몇 년 사이에 승진을 한 나는 의사와 부교수, 병원 관리자를 겸임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책임과 의무도 막중해졌다. 나는 생명 과학을 연구하는 한편 분만 간호진들에 대해 기초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병원 의료진에게 현장 실무 훈련에 참여토록 격려해 인재를 양성했다. 의료 서비스 방면에서는 ‘활기찬 엄마, 멋진 아빠 클럽’을 만들어 예비 엄마 아빠에게 ‘라마즈 무통 분만법’을 지도해 출산에 따른 고통과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그리고 ‘행복한 분만실’을 개설해 산모들이 동일한 방에서 출산을 대기하고 분만, 산후 조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상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또한 예비 아빠들이 함께 출산에 임해 두 사람의 사랑으로 결실 맺은 아기의 탄생을 함께 맞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출산 후에는 아기가 생의 첫걸음을 뗀 기념으로 아이의 족적을 새긴 축하 카드를 부모에게 선사

하고, 산모와 아기가 같은 방을 쓰게 하면서 모자간의 교감을 키우게 한다. 이 외에도 임신부의 음식은 전문 영양사가 세심하게 계획해 산모와 아기가 심신과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아늑하고 온정이 넘치는 환경 속에 출산을 대기하고 분만하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간의 사랑 역시 출산을 기다리는 동안 더 깊어져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 건설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념을 토대로 나는 병원을 산부인과, 분만실, 신생아실, 병실, 외래 환자과, 조리과로 재정비하고, 병원 직원들과 합심해 출산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고 가족 중심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내가 팔덕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많은 일을 이룰 수 없는 법이다. 모두가 공통된 의식을 갖고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이상이라 해도 꿈으로만 그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은 우리 전 직원이 합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맺음말

스승님께서는 근 20여 년 동안 묵묵히 이 혼란한 세상에 평화와 빛을 전하시며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고자 제자들을 이끌고 동분서주하고 계신다. 그런 스승님의 노고에 비한다면 나의 일은 백만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름 없는 많은 이들이 나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남 모르게 행하고 있으며, 그들이 나보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알고 있다. 신께서 이런 안배를 해주신 것은 내게 더욱더 수행에 정진해 앞으로 신의 일을 보다 잘 해내라는 뜻일 것이다.

신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으니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만약 스승님께 입문하지 않았다면 그저 분주한 삶을 살면서 환자를 돌보고 학생을 가르치

고 연구하며 명리를 쫓느라 눈이 어두웠을 것이다. 그러나 관음법문을 수행함으로써 그런 물질적 차원의 추구들을 멀리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내가 체험한 신의 사랑과 축복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의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그 뿌듯함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수행의 길을 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스승님께 이 제자가 어서 수행에 진보를 거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훌륭한 신의 도구로서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바이다!

이 인터뷰는 썬 TV '예술과 영상' 제39편에 방영되었다.

인터뷰 시청 관련 URL :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hichannel/index.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영어 자막 지원)

독자의 편지 

스승님께 봉사하길 고대하며...

비에리 피오렌자/ 스위스 (원문 독일어)

친애하는 칭하이 스승님께

최근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스승님의 웹사이트를 접하게 됐는데, 그 내용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당시 저는 세상을 떠나기 전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던 인도의 성인 바바지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스승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즉시 스승님의 책을 주문해서 봤어요. 내용이 참으로 이해하기 쉬웠고, 스승님의 설명에 따르면 관음법문은 배우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채식을 해 왔는데, 그건 동물이 인간에게 먹히기 위한 존재가 아니란 걸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스승님께 입문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스승님께서 스위스를 방문하시면 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님께서 호텔 대신 저희 집에 머물러 주신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일이 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디자이너시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아무런 대가도 필요 없으니 스승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스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고귀한 목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스승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스승님의 답신을 간절히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을 돕고 선행을 행복으로 여기는 모범적인 봉사자

삼군(三軍) 종합병원 산부인과 과장

사랑과 인술(仁術)의 천웨이화, 환자들의 축복

대만 최초로 '인간 배아 은행' 설립

휴일도 희생하며 민간 구조 단체에서 전공을 활용한 사회 봉사 활동

양구어씨엔 기자 독점 인터뷰

올해 국군 '좋은 사람 좋은 일' 대표로 뽑힌 삼군 종합병원 산부인과 과장인 천웨이화 대령은 의료 서비스 향상 외에 국내 우수한 의료진과 생명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의 심혈을 기울인 계획 끝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인간 배아 은행'은 인간 DNA 기능에 대한 첨단 기술 연구를 진척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포스트 DNA 시대의 유전자 연구 조류에 뒤처지지 않게 되었다. 이 외 천 박사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병원 산부인과 의 전문적 이미지를 건립하기 위한 '산모와 영아의 친화적 환경' 인가를 병원 측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군 '좋은 사람 좋은 일' 수상자들은 어제 시상식에 앞서 국방부 밖에 연대의 박애루에서 국방부 강녕씨가 차관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천웨이화 씨는 자신의 본분을 다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만약 같이 일하는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확장시킬 수 있다면 팀의 작업 효율성이 훨씬 증가하고 환자들에게도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혔다.

천 씨는 또한 삼군 종합병원의 산부인과는 산모들에게 포괄적인 가족 중심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모와 아이, 여성 환자에게 친근한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산모들이 배려가 가득한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출산을 대기하고 분만할 수 있도록 애쓰는 한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사랑

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부부가 함께 출산에 임하면 서로간의 사랑이 커지고 조화로운 사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천웨이화 씨는 의사들이 환자의 병만 치료할 게

아니라 환자의 심리 상태를 깊이 연구해 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그는 매체와 협력해 여성 건강에 관한 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산부인과 의사와 여성 단체의 모임을 통해 여성들이 건강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천 씨는 의료 구조 개념과 뛰어난 응급 처치 능력을 촉진, 개진하기 위해서 바쁜 와중에도 휴일에 산악 및 수중 구조 훈련에 참여해 신체 능력을 연마하고 기술 훈련을 받고 있으며, 국제 인증 산악 구조 훈련 자격증을 갖춰 놓았다고 얘기했다. 대만 소방서가 최초로 인정한 민간 활동 자원 봉사 단체인 '중화 수륙 양용 구조협회'의 일원이기도 한 천 박사는 재난이 일어나면 즉시 재난 피해 지역으로 달려가 제일 먼저 희생자들을 도우며 '남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천사이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구하는 이가 보살이다.'라는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구호 정신을 보여 주고 있다.



초창기 시절 스승님에 얹힌 기억

사제지간의 성스런 사랑

글: 아초

1985년 10월 2일, 이날부터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날 스승님은 타이베이 용산사의 주지인 혜인 스님의 청을 받고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하셨다. 그날 저녁 절에 갔을 때 나는 참 스승이 설법하러 오신 것은 꿈에도 모른 채 갈색 범복을 입은 자그마한 비구니가 관음보살께 배불하는 모습만 보았을 뿐이었다. 내 눈 속에 그녀의 우아한 모습이 들어온 순간 내 가슴과 영혼이 모두 떨리면서 잠시도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배불하는 모습이 너무나 고귀하고 경건하여 바로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날 것만 같았다. 반면 다른 사람의 절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부처님이 저만치 도망가는 듯했다. 나는 혜인 스님의 소개를 듣고서야 칭하이 스승님이 그날 처음으로 범문을 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스승님은 영어와 중국어를 병용하셨는데 강연 내내 청중들이 웃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나는 당시 ‘이 스승께서 제자를 받으실까?’ 하는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다. 왜냐하면 그 전날 관음보살에게 화를 내며 “제겐 저를 이끌어 주실 살아 계신 스승이 필요해요!” 하고 요청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다음날 스승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네이후에 있는 스승님의 거처를 알아낸 나는 즉시 길을 물어 차를 타고 출발했다.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물어 물어 가면서 길을 잃어버리기를 수차례, 하지만 결국 나는 스승님이 계시는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은 신개발지구로 많은 집들이 번지수도 적혀 있지 않은 상태였다. 내가 길을 잃고 오도 가도 못할 때마다 누군가 ‘때마침’ 나타나 길을 알려 주곤 했다. 나중에 나는 그것이 나를 도우러 오신 스승님의 화신임을 알게 되었다. 훗날 들어 보니 스승님께서도 제

자들에게 “나는 그녀가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셨다.

당시 스승님이 계신 곳에서는 선삼이 진행 중이어서 입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스승님은 내가 멀리서 찾아왔으며 만약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선이 끝난 그 다음날 새벽에 있을 입문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하시곤 관대히도 입문 전날 밤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다음날 입문식 동안 나는 다양한 내적 체험을 즐기면서 ‘와! 정말이네! 스승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다 있네!’ 하고 생각했다.

스승님의 처소는 산허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국지적인 소나기가 빈번하게 내리곤 했다. 그래서 단체명상을 하러 나설 때는 날이 짙어지다가도 스승님의 처소에 도착할 무렵엔 큰비가 쏟아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우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아입을 옷을 한 벌 더 챙겨 가지고 가야만 했다. 태풍을 만났을 때는 스승님을 뵈어야 안심될 것 같은 생각이 더 강렬해지곤 했는데, 한번은 스승님이 ‘채식 삼계탕 속에 든 닭’ 같은 우리 모습을 보시곤 마음 아파하시며 말씀하셨다. “밖에는 태풍이 난리인데, 여러분은 정신이 나간 것 같군요.”

자비로운 스승님은 무슨 물건이건 대중과 나누는 것을 잊는 법이 없으셨다. 때로는 우리가 집으로 가는 막차를 타기 위해 급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 하면 스승님은 발코니에서 우리를 불러 사랑이 가득 담긴 축복 음식을 비치럼 뿌려 주셨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가피물을 잡으며 스승님의 사랑에 마음이 훈훈해지곤 했다. 길 끝에 도착해 뒤를 돌아보면 저 멀리 아직까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드시는 스승님의 그림

자를 볼 수 있었다.

스승님의 처소가 멀었던 탓에 매일 단체명상에 올 수 있었던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나는 그곳까지 오는 데 길에서 네 시간을 보내야 했고 때로는 스승님과 30분밖에 명상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몇 시간은 내 평생 동안 가장 보배로운 순간이었다. 명상이 끝난 후 스승님은 우리와 함께 바닥에 앉아 깨달음이 가득한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시곤 하셨다.

행복했던 시간들은 쏜살같이 지나가는 법이다. 스승님은 비자가 다 되어 포모사를 떠나 출국하셔야 했다. 한번 가시면 6개월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 동수들은 열심히 단체명상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스승님의 소식이 들려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릴 뿐이었다. 스승님이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우리는 새가 되어 스승님께 날아가지 못하는 게 한이었다. 어느 날은 나 혼자 스승님의 처소를 청소하러 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탁자에 놓인 스승님의 가사가 눈에 들어왔다. 마치 스승님이 나타나신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리움이 북받쳐 올라 나는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계속 생각했다.

‘스승님! 도대체 언제라야 돌아오시나요?’ 마침내 인도에서 돌아오신 스승님은 도착하자마자 물으셨다. “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끔 누가 그렇게 통곡을 한 거지요?”

스승님께서 외국에 계시는 동안 우리는 스승님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고 전화 번호부를 뒤져 스승님이 이전에 안거하셨던 길상사를 알아내 찾아갔다. 그곳을 찾아갔을 때 우리는 이 절이 정말 고요한 곳임을 알게 되었다. 나이가 지긋한 그곳의 보살님은 스승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즉시 그곳 사람들도 스승님을 대단히 그리워하고 있다면서 스승님이 그 절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부지런히 수행하시고 겸손하셨는지 말해 주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본채 뒤편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으로 우리를 데려갔다. 그곳에 있던 것은 벽돌로 지은 허름한 작은 집이었다. 세면대조차 벽돌 몇 장으로 대충 지은 그 집이 바로 살아 계신 깨달은 스승이 안거하며 수행했던 선방이었던 것이다. 자비로운 스승님, 중생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시기 위해 이토록 고생하셨군요!

해외 흥법 이야기

안성맞춤이었던 상자

글: 관음사자

1993년 스승님이 처음으로 오스트리아에서 강연하실 때 스승님의 유머와 재치는 모든 청중들에게 활기와 웃음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대중을 즐겁게 만드는 스승님의 방법은 우리 범부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스승님의 강연은 항상 강연장의 청중과 상호 교감을 나누는 자연스런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스트리아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여서 스승님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또다른 방법으로 강연을 순조롭게 진행하셨

다. 스승님은 청중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지 알기 위해 당신께서 강연 며칠 전에 미래 시점의 강연 일로 올라가 말할 내용을 기록해서 돌아오신 후 독일어와 불어로 번역하고 오자 등을 퇴고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고 쉬우면서도 유창하게 말이 전해지도록 밤새 수고하신다고도 하셨다.

1993년 순회강연 동안 우리는 때로 단상의 탁자 위에 천으로 감싼 작은 상자를 두곤 했는데, 사실 이 상



자는 스승님의 강연용 친필 원고를 꽂아두는 책꽂이 용도였다. 그 작은 상자는 아주 안정맞춤으로 계속 별 탈 없이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오스트리아 강연 당일, 스승님께서 강연장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셨을 때 강연대 근처에는 나를 비롯한 두세 명의 시자가 서 있었다. 사회자가 말하는 동안 스승님은 나를 보시며 천으로 감싼 그 상자를 가리키시며 마음에 안 든다는 표시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곤 즉시 다른 것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하셨다. 너무 돌발적인 상황이라서 나는 어디 가서 알맞은 대체물을 찾아야 할지 몰라 초조한 마음에 애가 탔다! 마음이 다급해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어서 결국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종이 상자를 찾아 천으로 싸고는 시자에게 주며 탁자 위에 있는 상자와 맞바꿔 달라고 부탁했다. 그 시자는 극도로 긴장한 모습으로 “모두 다 쳐다보는데 정말 이 일을 해야 해요?” 하고 물었다. 그러다 결국 그녀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왔다.

그녀가 종이 상자를 탁자에 올려놓자 스승님의 몸이 얼굴 빼고는 완전히 가려져 버렸다! 스승님은 그 상자를 통해 청중들을 보시며 어렵사리 강연을 이어가셨다. 이 기상천외한 일로 인해 청중들은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트렸다! 스승님 역시 쓴웃음을 지으시며 달리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농담 삼아 말씀하셨다. 당초 강연장 분위기는 무거웠다. 손님들도 매우 엄숙

했고 말이다. 그러다 분위기가 한순간에 화기애애하고 가볍게 바뀌었다. 그러나 단상 밑에 있던 나는 웃을 정신이 아니었다. 대중 앞에서 스승님을 당혹스레 만들다니 정말 큰 실수를 했던 것이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난 왜 이렇게 멍청할까! 대충 봐도 상자가 너무 크다는 건 누구라도 알 텐데 그걸 탁자 위에 놓다니! 안 되겠어! 저 상자를 내려오지 않으면 안 돼. 스승님의 모습도 엉망이고 나중에 비디오 팀의 사형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시자에게 상자를 다시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던 터라 다시 강연 탁자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상자를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 손으로 상자를 꼭 눌러 못 가져가게 하셨다.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스승님은 이런 기발한 방법으로 강연을 끝까지 진행하셨고, 청중들은 그 사건 이후 계속 유쾌해했다.

알고 보니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편안하고 이완할 수 있도록 스승님이 한바탕 코미디를 하신 것이었다. 그 강연 동안 높고 아름다운 자장이 오래도록 감돌았으며, 스승님은 고아한 영적 가르침을 전해 주시는 것 외에 천진하고 낭만적인 감정과 기쁨의 기운을 모두에게 가져다주셨다. 스승님은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즐겁고 편안해지도록 늘 마음을 쓰신다.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SM 경서조)
<http://www.gods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qyitv.com> (한국-한국어)
<http://www.gods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불어, 영어, 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 (미국-스페인어)
<http://www.CauThongVoiThuongDe.com>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다국어 지원)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Real Audio 지원-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radio/aulac/> (캐나다 Real Audio & MP3-어울락어 유니코드)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quanyin.narod.ru/> (러시아-러시아어)
<http://www.conta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244-92-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ius@intnet.mu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더반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Ms. Dieketseng Napo 27-83-456-3968 dnapo@webmail.co.za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감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backhome25@hotmail.com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4424 55-91-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look.ca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l@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phathung20@yahoo.ca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오타와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80-4087 jsung99@shaw.ca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 D.F.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kamel@igo.com.mx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enter@adatel.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thanhgiang1990@yahoo.com
★ 파라과이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ureach.com
아쑹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플로리다 :	
★ 페루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Thaidbzad@msn.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entro@yahoo.com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tls1095@earthlink.net
리마	센터	51-1-4716472	*올랜도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ekalbekim@yahoo.com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georgiacenter@hotmail.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 살바도르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산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트리니다드 섬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tt.net,tt	켄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 미국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NGUYEN@MAIL.STATE.KY.US
애리조나 :	센터	1-602-264-3480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jlfontenot@hotmail.com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아칸사스 :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bobedj@cox-internet.com	메사추세츠 :	
캘리포니아 :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shinemound@earthlink.net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Ms. Gan Mai-Ky 1-508-791-7316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미시간 :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001@msn.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미주리 :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톨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roberts@lps.org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네바다 :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Lapaire@eng.sun.com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Edgar-Teresa@worldnet.att.net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husa.com
	Mr. Loc Petrus	1-510-276-4631 petrusl2k@earthlink.net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anawarskas@hotmail.com
	Mr. Jim Su	1-408-253-8516 SumaJim@aol.com	뉴욕 :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Mr. James Kiet Le	1-408-262-8233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dcouch@rochester.rr.com
노스캐롤라이나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오하이오 :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wisdmeye@aol.com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오리건 :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352-7787
 DiepAshleyPa@aol.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텍사스 :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jdauw@yahoo.com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attbi.com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Mr. Jimmy Nguyen 1-972-206-2042
 DallasCenter@hotmail.com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CHINGHAI_TX@sbcglobal.net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251-8812
 cuc_le@sbcglobal.net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hp.com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lethong@hotmail.com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y@hotmail.com
 *버지니아비치 Mr. David Young 1-757-588-8468
 davidkyoung@hotmail.com
워싱턴 :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위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아시아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sn.hinet.net
 Mr. & Mrs. Loh, Shih-Hurng 886-2-2706-2628
 shloh@ndmctsgh.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까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 홍콩 센터 852-27495534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joyandlove3@hotmail.com

★ 인도

뭄바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trust_god@rediffmail.com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shive@cal.vsnl.net.in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net.net.id
 Mr. Tai Eng Chew 62-21-6319061
 Ms. Lie Ik Chin 62-21-6510218
 finance1@ueii.com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irn_up@yahoo.com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메단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Mr. Harry 62-31-594-5868
 harry_l@sby.dnnet.net.id
 욕야카르타 Mr. Augustinus 62-274-588-105
 t.adianingtyas@eudoramail.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247
 ya05@netvision.net.il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ath.biglobe.ne.jp



전세계 연락처

다테야마	센터	81-470-209127 tateyama_lg@yahoo.co.jp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cal13840@pop07.odn.ne.jp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네팔	센터	977-1-254-481
★ 한국			카트만두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출판사	031-772-9250 chinghai@unitel.co.kr		Mr. Ajay Shrestha	977-1-473558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1@kornet.net		ajaystha@hotmail.com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quanyim@unitel.co.kr	포카라	센터	977-61-28455
	유태인	02-795-3927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이지자	02-599-1701		neupanebishnu@hotmail.com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chinghaibusan@hanmail.net	Mr. Shiva Bastola		977-61-28255
	송호준	051-957-4552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황상원	051-805-7283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842-8828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신현창	063-254-5824		chinghai@singnet.com.sg	
인천	인천 센터	032-579-5351	★ 스리랑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이재문	032-244-1250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김익현	053-633-3346		lawrance@thefinance.lk	
	한선희	053-767-5338	★ 태국		
	차재현	053-856-3849	방콕	센터	662-674-2690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bkk_c@hotmail.com	
	김수동	042-254-7309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66-2-5914571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edaslnd@samsorn.stou.ac.th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Mr. Wu Peir Yuan		66-1-8248294
	김삼태	054-821-3043	Ms. Siriwan Supatrachamnian		66-53-384128
제주	제주 센터	064-99-6113	콘겐	센터	66-43-378112
★ 마카오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송크라	센터	66-74-447224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유럽 ***		
★ 말레이시아			★ 오스트리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칼라룸푸르	센터	603-9287-3904 klsmch@tm.net.my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lgcp@hotmail.com	★ 벨기에		sound@gmx.at
페낭	센터	6-018-2413832 pgsmch@pd.jaring.my	브뤼셀	Ms. Ann Goorts	31-6-11-240-115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gotske@yahoo.fr
★ 몽골			★ 불가리아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50422 baasandamba@yahoo.com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old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mail.bg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prague-center@chinghai.cz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Chinghai@chinghai.cz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_pl@yahoo.com
★ 핀란드			로드츠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czakra@interia.pl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hoanghanh@jippii.fi	★ 포르투갈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kolumbus.fi	리스본	Mr. Joao Daniel Rosa Simoes	351-21-082-5306 lisbon_center@yahoo.com
★ 프랑스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 러시아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 슬로베니아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파리	센터	33-1-4300-6282	★ 스페인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ilancelot@celestialfamily.net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Madridcenter@yahoo.es
★ 독일				Ms. Lidia Kong	34-91-5470366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pureocean@web.de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Mr. Christian Bastwoeste	49-30-3470-9262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1-5809-816 49-174-5265242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 스웨덴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moonasilver@yahoo.com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are.sweden@post.utfors.se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_source@t-online.de	말뫼	Mr. & Mrs. John Wu	46-40-215688 john.wu@bolina.hsb.se
★ 그리스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아테네	Mr. Eric Raza	30-01-6923-133 Razahidah@hotmail.com	★ 스위스		
★ 네덜란드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암스테르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 영국	Ms. Klein Ursula	41-22-3691550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vo-khong@wanadoo.nl	입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m@ntlworld.com
★ 헝가리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Mrs. C. Y. Man	44-1895-254521 pnl@matters19.freemove.co.uk
	Mr. Lux Tamas	36-304273364	스톡홀름	Mrs. Janet Weller	44-1782-412728 l.wellers@ntlworld.com
	Ms. Dora Seres	36-1379-1924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기요르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 스코틀랜드		
★ 아일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bernardleech2003@yahoo.co.uk	*** 오세아니아 ***		
★ 노르웨이			★ 호주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norwayqy@online.no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91-4874953			



전세계 연락처

브리즈번	센터	leonadelaide@hotmail.com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Mr. Gerry Bisshop	briscentre@telstra.com		daveb@inet.net.au
	Mrs. Tieng Thi Minh Chau	617-3847-1646	Mr. Ly Van Tri	61-8-9244-7661
바이런베이/노던리버스		617-3715-7230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ctieng@telstra.com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Mr. Hong Bo	61-2-48445170
캔버라				hongbo_huang@hotmail.com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Mr. Ly An Thanh	61-2-9823-8223
		rayandjulie@linknet.com.au		anbinh_sydney@yahoo.com.au
멜버른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 뉴질랜드	
		smcanbra@cyberone.com.au		
	센터	melbsmch@aol.com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퍼스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649-277-9285
		rosrobbery@aol.com		takahide@xtra.co.nz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크라이트스트치	Mrs. Anne Lester
	Mr. Alan Khor	61-3-9857-4239		649-625-1809
		phongloveme@yahoo.com	Mr. Michael Lin	annenz@eudoramail.com
		ckhor@bigpond.net.au	Mr. Glen Vincent Prime	643-343-6918
		61-8-9242-1189	해밀턴	nzchchsmch@hotmail.com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SM 경서조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3-802829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LA센터 경서팀

이메일: la_bookstore@yahoo.com
팩스: 1-909-738-9992

SM 보석 주석회사

이메일: smcj@ms34.hinet.net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031-772-9250
팩스: 031-772-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ril@kornet.net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디자인: 청하이 무상사

대나무 만세등이 무상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열다



태극 ▶

음(陰)의 가운데 양(陽)이 있고, 양의 가운데 음이 있다. 긍정과 부정의 이원적인 이 세계는 끊임없이 돌고 돌지만 내면의 빛은 그 모두를 초월해 존재한다.

▼ 축복의 빛

방사형의 대나무 줄은 온 누리를 비추는 축복의 빛을 상징한다. 축복의 빛을 쫓아 빛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자.

▼ 영혼의 연꽃

지혜안은 한 떨기 연꽃과 같다. 중앙은 영원히 빛나는 마니주다.

◀ 출향

이 영혼의 비행접시에 올라타 눈부시기 이를 데 없는 행성으로 떠나 보자.

▼ 생명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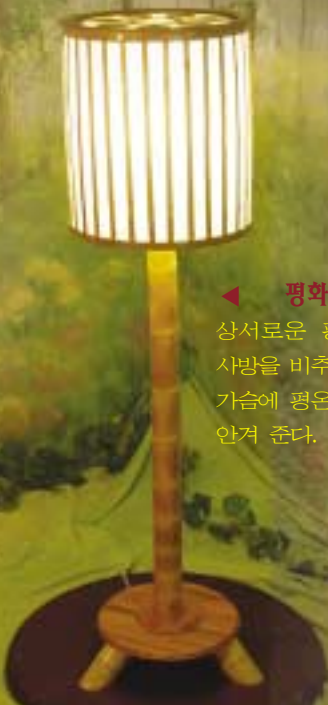
내면의 빛이 키워 내는 생명의 나무. 멋진 모습으로 자라나 꽃을 피운다.

▼ 천국의 문

잠겨 있는 듯한 성에는 천국으로 통하는 단 하나의 문이 감춰져 있다. 그 열쇠를 갖고 있는 깨달은 스승만이 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

◀ 평화의 빛

상서로운 평화의 빛이 사방을 비추고 중생들의 가슴에 평온과 고요함을 안겨 준다.



디자인: 청하이 무상사

대나무 만세등이 무상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열다

스승님이 최근 새로이 디자인하신 매우 우아한 자태의 만세등 12점은 흠 하나 없는 대나무를 소재로 만들어졌다. 대나무는 그 속성상 크기와 모양, 결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번 대나무 만세등은 각각 이러한 대나무의 재질을 최대한 살려 완전 수공예로 제작되었다. 스승님은 제작 과정 중 대나무의 본래 모습이 고스란히 유지되도록 특별히 당부하셨는데, 이에 따라 각 만세등은 유일무이한 예술 작품이 되었다. 만세등마다 정교하게 장치된 에너지 절약 전구, LED 등으로 인해 각자 고유한 자태로 빛을 발산한다. 물론 각각의 등에는 스승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의미와 무한한 사랑의 빛이 담겨 있다.

▼ 천국의 다리 ▼

지극히 밝은 빛을 뿜어내는 천국의 다리. 중생들을 피안의 고향으로 인도한다.

▼ 천국의 비 ▼

작은 대나무 조각들이 허공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는 모습은 마치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천국의 빗 방울과 같다.

▲ 감로병(甘露瓶) ▲

감로병의 무한한 빛과 사랑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은 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킨다.

▼ 천국의 손 ▼

누구의 손길이 언제 어디서든 중생을 보호할 수 있을까? 다섯 손가락에서 뿜어 나오는 다섯 줄기의 사랑의 빛은 우리를 5세계로 이끈다.

▲ 행운의 팔괘(八卦) ▲

팔괘(중국 역경에 나오는 팔각형의 그림) 속에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면이 담겨 있다. 이 행운의 팔괘는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스런 삶을 가져다줄 것이다.

